

中 · 近世 農具의 종합적 분석

Analysis of Agricultural Utensils from the Medieval Age to Early Modern Age, Korea

김 재 홍
국립춘천박물관

I. 머리말

II. 중 · 근세 農具의 분석

1. 考古學 資料로서의 농구
2. 農書 속의 농구
3. 繪畵에 묘사된 농구

III. 農具로 본 農業技術의 발전

IV. 맺음말

국문 요약

발굴현장에서 얻어진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農書와 회화에 보이는 농경을 분석하여 고려·조선시대의 농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농구는 쟁기(보습과 벧)·'U'자형쇠날(따비·화가래·가래)·괘이 등의 같이 농구[起耕具], 씨레·쇠스랑과 같은 삶는 농구[摩田具], 살포와 같은 물 대는 농구[水田具], 호미와 같은 김매는 농구[除草具], 낫과 같은 거두는 농구[收穫具], 그리고 도리깨·개상과 같은 터는 농구[打作具]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 보아 고려·조선에서는 같이[起耕]-삶기[摩田]-물대기[給水]-김매기[除草]-거두기[收穫]-털이[打作]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관련하여 가장 발달한 농구는 쟁기, 살포, 호미이며, 특히 호미는 김매는 작업이 가장 긴요한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에 맞는 농구이다.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농구가 발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농구 중에서 쟁기-가래, 쟁기-쇠스랑, 화가래-쇠스랑 등과 같이 같이·삶는 농구를 이용한 농작업이 가장 일반적인 농사체계였다. 고고학 발굴조사 현장에서도 같이 농구와 삶는 농구의 출토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철제 농구가 출토된 유적은 무덤유적과 생활유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農耕儀禮로서 사용된 예도 있다.

주제어 : 철제 농구, 쟁기, 코끼리이빨따비, 호미, 쇠스랑, 농사직설

I. 머리말

한국 중·근세사회에서¹⁾ 농업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요소였으며, 농업 생산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활동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중·근세사회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기반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農業生産力은 노동력, 노동수단, 노동대상의 3가지 구성요소가 어우러져 총체적으로 발휘된다. 이러한 요소가 결합하여 농업 경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근세의 농경에 대한 연구는 문헌사학과 농학에서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많은 연구(이춘녕 1964·1989, 이태진 1986·1989, 이호철 1986, 민성기 1990, 위은숙 1993, 김용섭 2000, 염정섭 2002)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고학에서는 자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자료정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전국의 발굴조사현장에서 고려·조선시대 유적의 발견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근세사회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 농경유적의 발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중에서 노동대상인 耕作遺構(논, 밭)의 발굴조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새마을 운동으로 인한 경지정리가 이루어지기 이전과 유사한 계단식 논과 밭의 형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개발하는 생산도구인 農具(生産手段)에 대한 조사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구가 발견되는 유구는 무덤유적이 많지만 중·근세의 유적에서는 관청, 사찰 등의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건물지에서 발견되는 철제 도구 중에서는 농구로 인식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용도나 불명철기로 표기하는 경우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중·근세의 철제 농구를 조사·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서에 나오는 철기를 대상으로 기능상 농구로 확정할 수 있는 유물을 선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대 철제 농구의 연구성과(김재홍 2011)를 참조하고 이를 조선시대 농서 및 회화자료에 나오는 농구와 비교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각과 문제의식 아래에서 다음의 순서로 논지를 전개

1) 한국사의 시대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대(신라 통일기까지), 중세(고려), 근세(조선), 근대(개항이후), 현대(광복이후)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중·근세도 고려·조선 시대를 지칭한다.

하려 한다. 먼저 고고학 발굴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농구의 기능에 따라 분석하고 출토유적의 성격을 조망하며, 이를 기초로 농서 및 회화자료에 보이는 농구와 비교함으로써 중·근세 농업기술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문헌사학과 농업사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물 자료인 철제 농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Ⅱ. 중·근세 農具의 분석

1. 考古學 資料로서의 농구

이 절에서는 고고학 발굴조사 현장에서 출토된 농구 자료를 검토하여 농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려고 한다. 중·근세를 대상으로 하는 고고학 보고서에서는 농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편이지만 철제품 중에는 생활도구인 농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부족하거나 不明鐵器로 나오는 철제품을 농서나 민속학 자료와 비교하여 농구를 이해하고자 한다. 고고학 자료로서의 농구는 보습, 벧, 따비, 호미, 살포, 낫 등의 자료가 출토되었으나 보고서에서는 일부 편으로 출토된 경우 농구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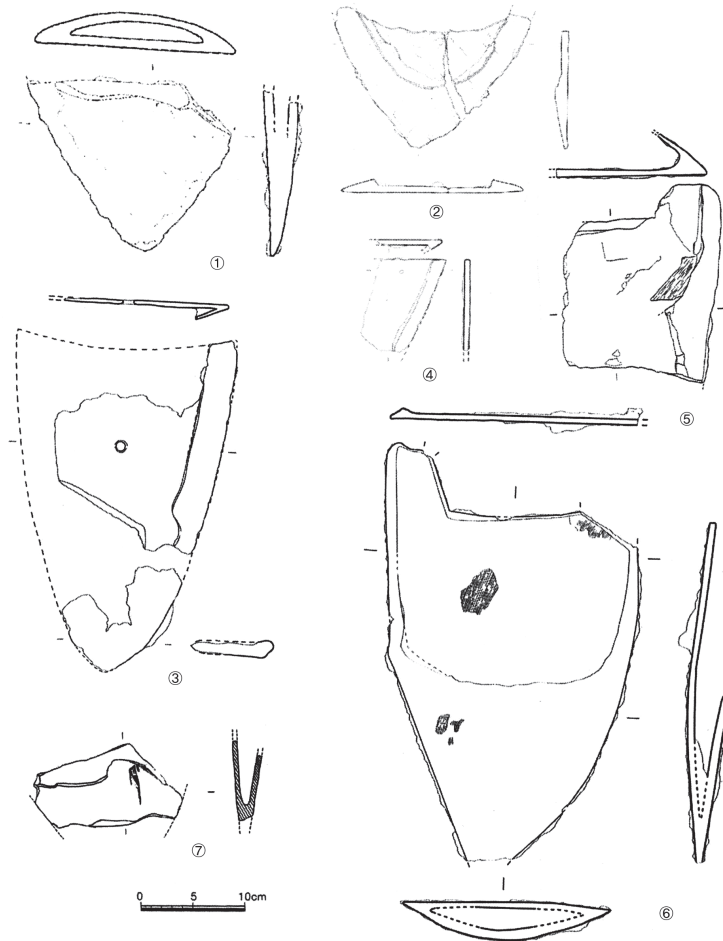
1) 鐵製 農具의 분석

(1) 쟁기 (그림 1)

고고학 자료로 출토된 고려시대의 쟁기는²⁾ 보습과 벧이 있다. 보습만 출토된 예는 파주 혜음원지, 안산 大阜島 六谷 23호 土壙木棺墓, 용인 麻北里寺

2) 이 글에서는 소가 끄는 같이 농구를 쟁기라고 하고 경지에 닿아 가는 기능을 하는 쟁기날을 보습, 보습이 간 흙밭을 한 방향으로 넘기는 것을 벧으로 정의한다.

址, 충주 崇善寺址, 대전 상대동 고려시대 23호 건물지, 아산 대추리 고려시대 1호 건물지(그림 3), 경주 勿川里 고려시대 Ⅲ-2호 토광묘, 거창 天德寺址 등이며, 충주 老鷄마을 야철유적 D지구 3호 매납유구에서는 보습과 벧이 함께 출토되었다. 조선시대의 보습은 보령 聖住寺址 지표수습, 논산 水湯石橋, 경주 萬歸亭址 등에서 발견되었다. 지역적으로 남한 전역에 걸쳐 골고루 출토되며, 유적의 성격상으로는 사원터, 무덤, 다리, 건물지 등 다양한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이는 쟁기의 사용이 지역이나 사용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림 1] 보습

- ①파주 해음원지 ②안산 대부도 육곡23호 ③용인 마북리사지 1호건물지 ④용인 마북리사지 2호건물지
⑤보령 성주사지 ⑥대전 상대동 23호건물지 ⑦거창 천덕사지

반영하고 있다. 특히 사원이나 건물지에서 출토된 경우가 많아 공적인 영역에서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무덤유적인 大阜島 六谷 23호 土壙木棺墓에서 청자배개와 더불어 출토된 예로 보아 지방의 중소 지주층 이상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조선시대의 보습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체적으로 삼각형이며 두께가 두터운 것으로 대부분의 보습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끝이 뾰족하면서도 작으며, 두께도 얇은 편으로 용인 마북리사에서 출토된 보습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이나 용도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 주목되는 것이 『課農小抄』에 “今見我國峽鑿橇厚 竝駕兩牛 湖鑿狹長 速駕三牛 畿鑿尖小 只駕一牛 是皆量地增減 隨俗通變者也”라는 기록이다. 산간지대의 보습들은 그 형태가 두터우면서도 둥글 길죽하여 쟁기에 두마리의 소를 횡렬로 나란히 세워 끌었다. 이는 출토 쟁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각형 보습의 형태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산간지대에 맞는 쟁기가 사용되었으며,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겨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쟁기는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농갈이〉에 묘사된 쟁기의 형태와도 동일하다. 그런데 평야가 많은 경기지방의 보습은 끝이 뾰족하면서도 작으며 한 마리의 소로 끄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쟁기는 마북리사에서 발견된 보습의 형태와 일치하고 있다. 보습은 해당지역의 자연 조건과 풍속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축력 이용방법이 있다(홍희유 1959 : 129).

기록상으로 쟁기는 벧이 달린 보습이 일반적이지만 고고학 자료상으로는 보습만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출토 쟁기가 10점 정도인 상황에서 선부른 판단은 유보되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벧 없는 쟁기가 보편적이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형상 無床犁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벧 없는 쟁기로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재 발견된 보습도 충주 老鷄마을 야철유적과 대전 상대동 고려시대 보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편으로 출토된 것이므로 벧도 편으로 발견되어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충주 老鷄마을 야철유적과 아산 대추리 건물지에서는 고려시대

쟁기가 확인되었다. 충주 노계마을 야철유적에서는 多數의 보습과 함께 2점의 벼이 출토되었다. 보습의 수량에 비해 벼의 출토량이 적어 세트관계를 바로 연결하기는 곤란하지만 벼 달린 쟁기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벼은 두 종류가 출토되었는데, 하나는 고정쇠 1개와 반원형 고리 2개가 달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쇠 2개와 삼각형 고리 3개가 달린 형태이다. 함께 출토된 유물과 보습·벼의 형태로 보아 10~11세기의 쟁기로 판단된다. 아산 대추리 1호 건물지에서는 코끼리이빨따비와 더불어 보습 1점이 출토되었다. 보습은 충주 노계마을 야철유적에서 발견된 보습과 그 형태와 크기가 거의 유사하다. 고려시대의 보습은 頭部 가장자리 귀[耳]가 길어지고 전면과 배면에 각각 하나의 구멍이 뚫려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논산 水湯石橋에서도 보습과 벼이 함께 출토되었는데(그림 2), 보습의 형태는 온전하지만 벼는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자세한 형태를 알 수 없다. 보습은 배면의 가운데에 역사다리꼴 구멍이 나 있어 나무 쟁기술을 고정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벼를 용도불명이라고 하였으나 그 형태로 보아 벼이 확실하다. 벼는 일부만 남아 있으며 2개의 고리만 잔존한다. 전형적인 鏡面 형태로 일반적인 모양이며 고정쇠와 고리 1~2개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습과 벼는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 쟁기로서 벼 달린 쟁기의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쟁기의 형태가 경기 반월(김광언 1969 : 사진 20)의 민속예와 황해 연백(정시경 1959 : 127 그림 11)의 예로 보아 19세기 후반 이후 개량형의 쟁기로 보인다. 이 쟁기는 다리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하천을 굴착하는 기능과 관련지을 수 있다. 영조대 〈御前瀋川題名帖〉에서도 청계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가 끄는 쟁기를 이용하여 하천을 굴착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습은 삼국시대 고구려에서부터 사용하였다. 삼국시대 보습[鐵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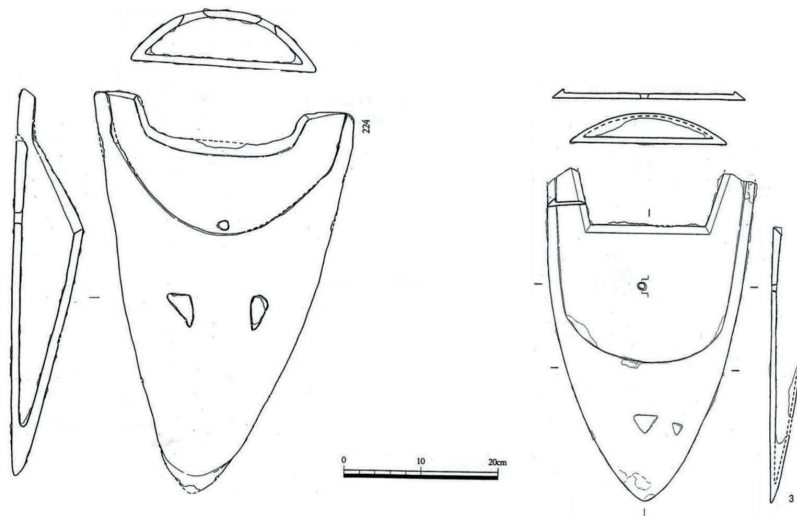
[그림 2] 수탕석교 보습

확실한 예는 신라 유적인 안변 용성리고분에서 나온 끝이 둥근 ‘U’자형의 보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구려의 보습이다. 6세기대의 유적인 용성리고분군도 원래 고구려지역에 있었던 것이므로 현재 발견된 보습은 대부분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삼국시대 보습은 그 모양으로 보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九宜洞 高句麗堡壘遺蹟에서 출토된 삼각형 보습이고 다른 하나는 신라유적인 안변 용성리고분에서 나온 끝이 둥근 ‘U’자형의 보습이다. 이 중에서 구의동의 삼각형 보습은 조선시대까지도 계속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쟁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는 신라 통일기 이후이다. 보습은 고구려의 삼각형 보습을 계승하여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체적인 형태가 비슷하다(김재홍 2003). 그러나 이 시기의 쟁기는 대부분 벼이 있는 有鏵犁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요한 변화는 고랑을 만드는 보습과 더불어 두둑을 만드는 벼이 나타나는 것이다. 쟁기에서 벼은 흙을 뒤집어 깊이갈이를 가능하게 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논에서의 이어짓기와 밭에서의 돌려짓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벼의 사용으로 休閒農耕에서 連作農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한다. 벼이 없는 쟁기에서 벼이 있는 쟁기로 이행하는 것은 벼밭의 반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거둑 反耕함으로써 精耕細作을 가능하게 하여 토지 肥培力을 증대시켜 2년 4작, 2년 3작이라는 輪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나아가서 花·南草 등 경제작물의 재배, 廣作 경영으로까지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신라 통일기의 보습은 세장한 삼각형이고 양 가장자리 귀[耳]가 돌출하며 전면에 1개, 배면에 2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송윤정 2009 : 203). 신라 통일기의 보습을 계승한 고려시대의 보습은 세장한 삼각형에 양 가장자리 귀[耳]가 심하게 돌출하고 전면과 배면에 각각 1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쟁기술에 고정하게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신라 통일기의 보습을 계승하고 있으나 세부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조선 말기에는 頭部의 귀가 없어져 직선을 이루며 배면에 역사다리꼴의 구멍이 뚫린다(그림 2).

이와 같이 고려·조선시대에 쟁기가 보급되면서 논과 밭농사에서 쟁기는 耕作에 사용되었다. 삼국시대부터 논과 밭에서 소가 끄는 쟁기를 이용하여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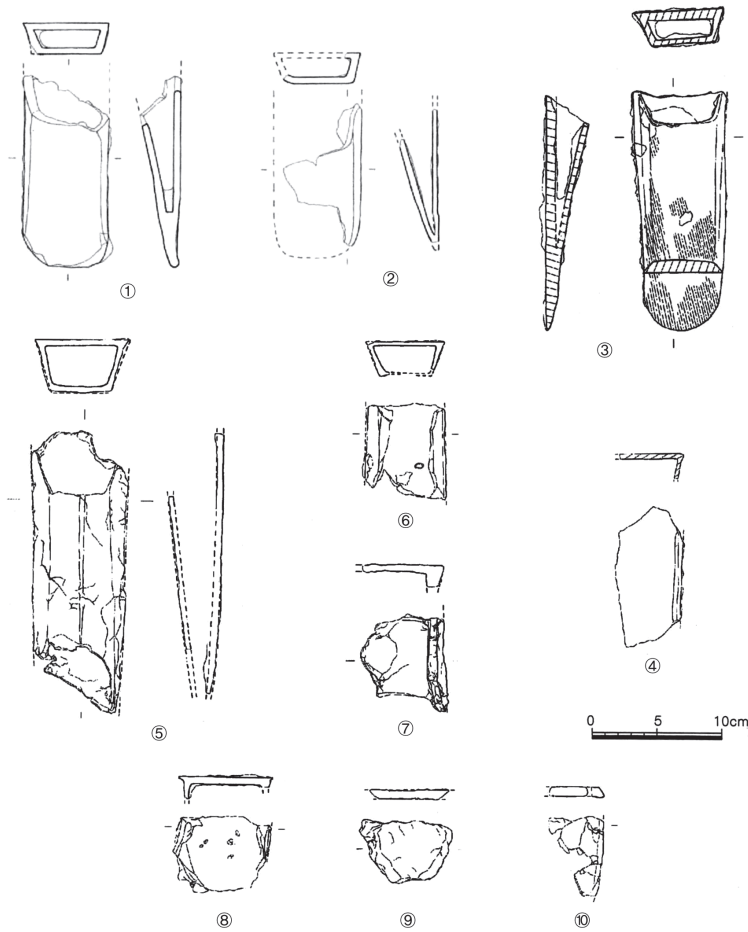


[그림 3] 보습 (신라통일기→고려)

작하면서 논을의 형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울산 無去洞 玉峴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논을의 전개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논은 주로 長方形의 小區劃된 논을의 獨 안에 鏡作面의 凹凸부분이 매우 불규칙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삼국시대의 논은 폭이 좁고 긴 계단식 논으로 요즈음의 논과 같이 기다란 모양을 하고 있다. 그 위의 조선시대 논도 기다란 계단식이나 삼국시대의 논보다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을의 두 가지 형태로 보아 小區劃 論에서 대규모 階段式 論으로 발전하며, 폭이 좁은 것에서 넓은 계단식 논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계단식 논은 철제 농구의 발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쟁기를 끄는 牛耕의 보급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2) 주조괭이 (그림 4)

鑄造괭이는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용인 麻北里寺址, 수원 靈通 高麗遺蹟, 수원 九雲洞 中世 住居遺蹟 4호 住居址, 청주 鳳鳴洞유적 IV지구 B-4호·C-25호 土壙墓, 아산 대추리 고려시대 1호·2호 건물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주조괭이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사용된 가장 오래된 농구의 하나이며, 고려·조선시대에는 날끝이 좁아지면서 따비의 기능으로 변하게 된다. 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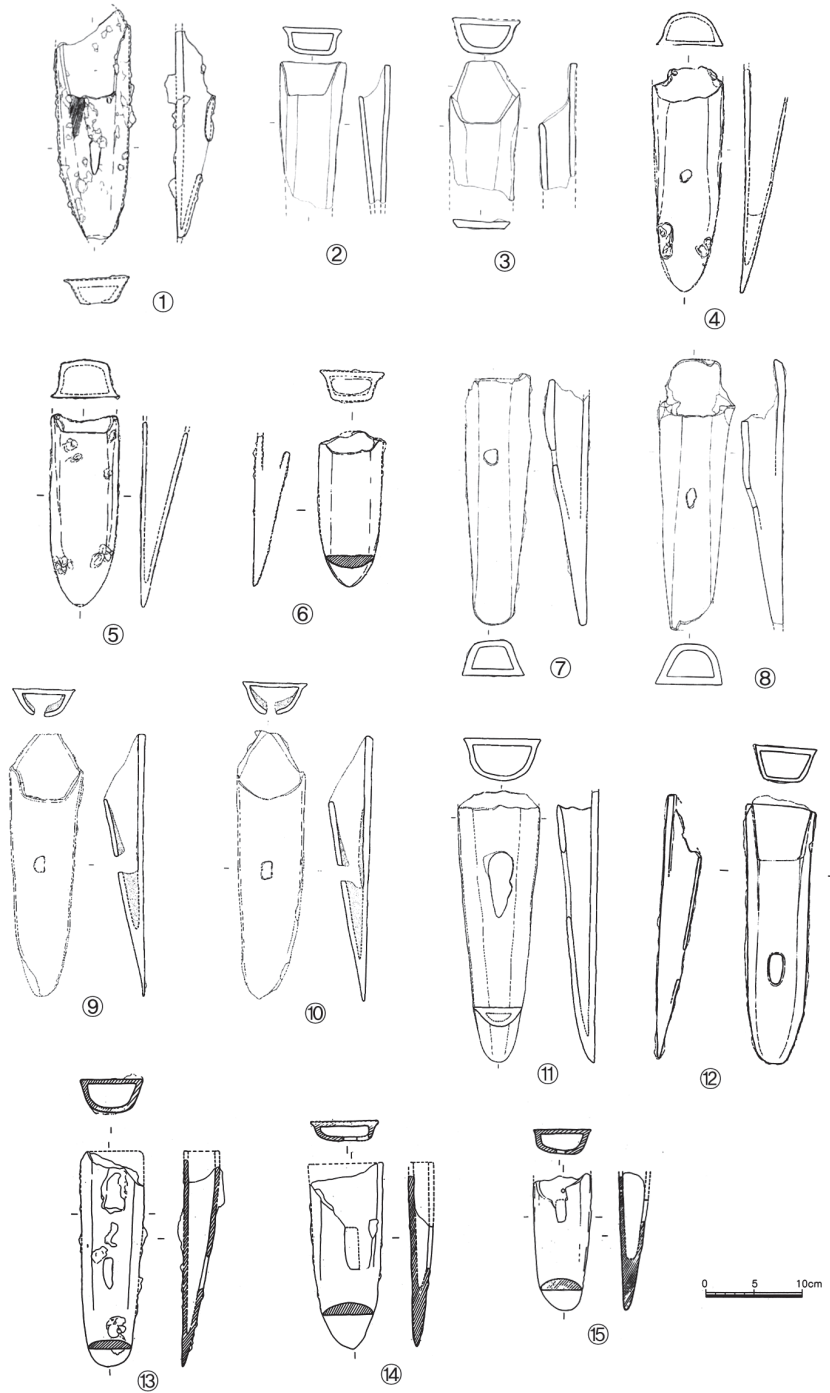


[그림 4] 주조괘이

①·②용인 마북리사지 ③청주 봉명동 IV지구 B-4호 ④청주 봉명동 IV지구 C-25호 ⑤~⑩수원 구운동 4호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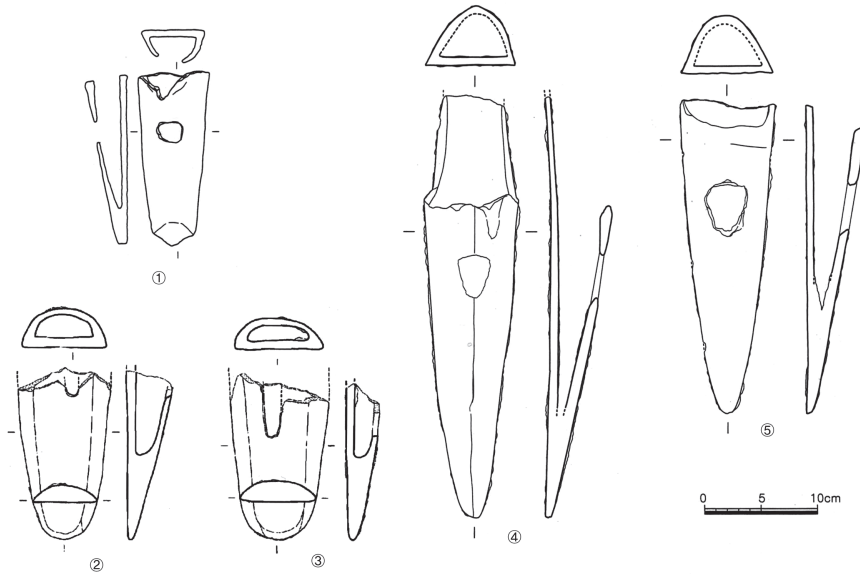
는 유사하나, 2점을 함께 사용하는 코끼리이빨따비로 전환되었다.

주조괘이와 코끼리이빨따비는 그 형태가 유사하여 구별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으나 평면 및 단면형태로 보아 기능을 구별할 수 있다. 먼저 주조괘이는 횡단면의 단면이 사다리꼴이며, 전체적인 모양이 직사각형이고 날과 투겹의 폭이 거의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폭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하고 괘이 각면의 경계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면 형태가 직사각형이므로 땅을 가는 기능보다는 땅을 파는 괘이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그림 5] 코끼리아빨따비(고려시대)

①안산 대부도 육곡4호 ②·③용인 마북리사지 2호건물지 ④·⑤평택 지산동유적 ⑥옥천 백지리유적
 ⑦·⑧강릉 신복사지 ⑨·⑩상주 성동리 건물지 ⑪고령 지산동 채집 ⑫장흥 상방촌B-16호 ⑬~⑮거창



[그림 6] 코끼리이빨다비 (조선시대) ①홍천 물걸리사지 ②·③양산 소토리 15호 ④·⑤보령 성주사지

(3) 코끼리이빨다비 (그림 5·6)

기존에 주조괘이로 인식된 농구 중에서 2점을 하나의 세트로 사용하는 코끼리이빨다비가 이에 해당한다. 고려시대의 것은 안산 大阜島 六谷 4호 石槨墓, 용인 麻北里寺址, 평택 芝山洞유적 건물지, 평택 宮里유적 溝, 강릉 神福寺址, 옥천 백지리 I 지구 상층유구, 대전 상대동 고려시대 13·17·19호 건물지, 충주 老鷄마을 야철유적 D지구 3호 매납유구, 상주 城洞里 건물지, 고령 池山洞 주변채집, 경주 花川里 산214-1번지 15호·16호 土壙木棺墓, 거창 天德寺址 8점, 장흥 上芳村 B유적 16호 積石 등에서 출토되었고, 그 외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따비날(그림 7)이 있다. 조선시대의 출토품은 홍천 物傑里寺址, 보령 聖住寺址 조선시대 제2건물지, 양산 所土里 15호 土壙墓 등에서 출토되었다.

코끼리이빨다비는 단면의 형태가 각을 죽인 사다리꼴·각진 반타원형인 것(I 식)과 반타원형 혹은 반원형인 것(II 식)으로 나뉜다. 그리고 돌출 평판의 유무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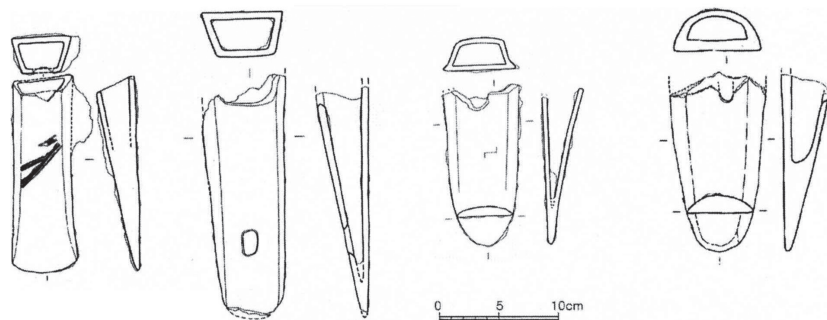


[그림 7]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따비

라 돌출 평판이 없는 것(1식)과 있는 것(2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I 식은 전체적인 모양이 썰기형이고 날의 폭이 좁아져 날이 뾰족하며, 투겁의 폭이 더 넓은 것이다. II 식도 전체적인 형상이 I 식과 비슷하나 단면이 반원형으로 차이가 있다. 평면 형태가 썰기형이고 날이 뾰족하므로 땅을 가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주조쟁이와 형태가 유사하나 세부적인 차이로 인해 기능이 구분되었다.

I -1식은 날의 세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횡단면은 각을 죽인 사다리꼴이고, 양 측면은 외반하여 평판과 이어지며 평면상으로는 날 방향으로 폭이 줄어든다. I -2식은 날 반대편에 돌출 평판부가 있으며, 돌출부는 끝 쪽으로 폭을 줄인 사다리꼴이며, 양측 모서리는 사면으로 처리되어 있다. 각 면은 뚜렷한 경계선이 없이 곡선으로 연결되며, 횡단면에서 양 측면은 외반하여 평판과 이어지고 단면은 각진 반타원형이다. II 식은 예가 많지 않으나 II -1식은 횡단면이 완만한 타원형이고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II -2식은 단면이 거의 반원형이고 돌출 평판부로 인하여 길이는 짧아지지 않고 있다. 코끼리이빨따비는 신라 통일기 이후에 새로이 나타나는 것으로 2점이 세트로 출토되어 두날 따비의 날로 추정된다. 이것은 주조쟁이가 신라 통일기를 전후하여 평면형태가 세장방향으로 바뀌면서 날의 폭이 좁아지고 투겁 아래쪽의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로 변한 것이다.

전체적인 발전방향은 주조쟁이 → I 식 → II 식으로 진행되며, 횡단면의 형태는 사다리꼴 → 모죽인 사다리꼴 · 각진 반타원형 → 반타원형 · 반원형으로 변화한다(그림 8). 특히 단면의 형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따비를



[그림 8] 주조쟁이(삼국)→주조쟁이(신라통일기)→따비 I (고려)→따비 II (조선)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고려시대에는 모죽인 사다리꼴이나 각진 타원형의 I 식이 주로 사용되나 조선시대에는 타원형이나 반원형의 II 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4) 'U'자형쇠낱 (그림 9)

'U'자형쇠낱은 평면형태가 'U' · 'ㅍ'자형의 쇠낱을 가진 농구로서 나무 자루의 장착방법에 따라 따비, 삽, 가래, 화가래로 사용되었다(천말선 1994 : 12~13). 'U'자형쇠낱은 낱과 자루가 평행하게 연결되어 요즈음의 삽낱, 따비 낱, 가래낱로 사용되기도 하고, 낱과 자루가 直角으로 연결되어 화가래와 같이 땅을 파는 기능으로도 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화가래의 기능보다 따비나 가래의 역할을 주로 하였다고 추정된다. 이것은 낙랑지역에 해당하는 토성리, 운성리토성, 운성리 가말피 2호 등 2세기경으로 편년되는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나 남부지역에서는 3세기경부터 나타난다. 이것은 영남지역의 木槲墓와 중부지역의 住居址에서 주로 출토되고, 5세기이후에 전국적으로 분포범위가 넓어지고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신라 통일기 이후에도 꾸준히 농경에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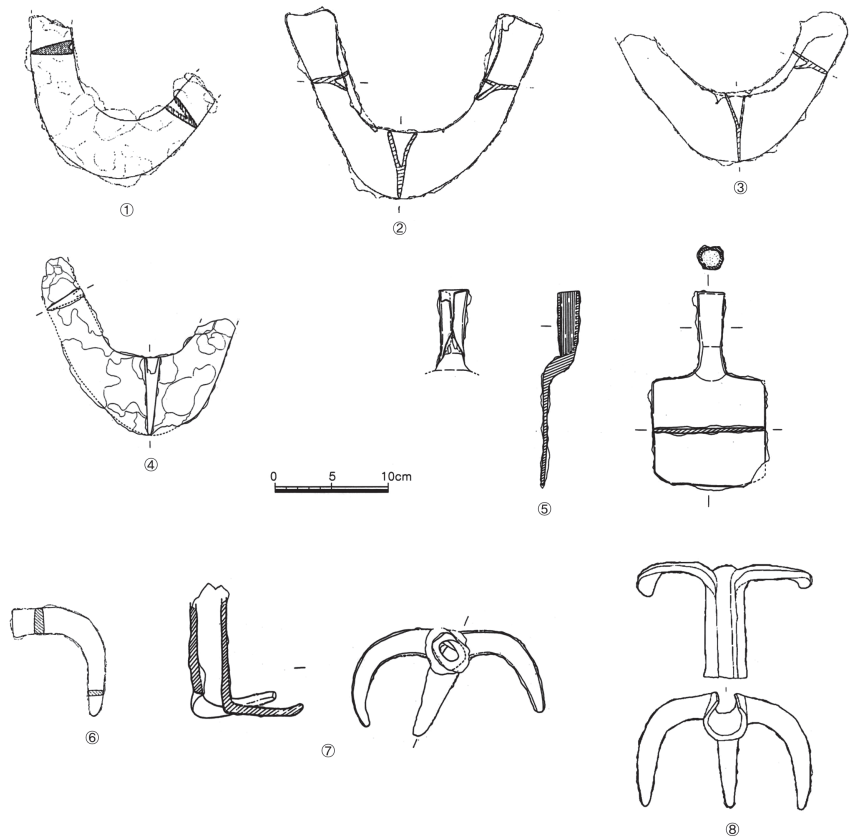
'U'자형쇠낱은 낱이 벌어지는 각도에 따라 'U'자형의 I 식과 끝이 둥근 'V'자형의 II 식으로 나눌 수 있다. I 식은 북쪽 고구려지역에서, II 식은 신라 · 가야지역에서 많이 사용하였다(김재홍 2005). 신라 · 가야의 'U'자형쇠낱은 삽낱 끝보다 가장자리의 낱 끝의 폭이 더 넓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처음 경지에 닿는 부분은 좁지만 점차 넓은 면적을 갈게 된다. 고려 · 조선시대의 남부지역에서는 신라 · 가야지역의 둥근 'V'자형태의 'U'자형쇠낱과 같은 형태인 II 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고려시대의 출토품은 과주 혜음원지, 청주 鳳鳴洞유적 IV지구 B-13호 · C-25호 土壙墓, 대전 상대동 고려시대 12호건물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청주 鳳鳴洞유적 IV지구 B-13호 土壙墓 출토의 'U'자형쇠낱은 전체적으로 평면 'U'자형이지만 낱의 가장자리에서 반원모양으로 연장되어 있다.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것이 신라 통일기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U'자형쇠낱이다. 이는 다른 'U'자형쇠낱과 다른 특징의 하나이다.

고려·조선시대의 'U'자형쇠날은 삼국시대에 비해 출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이 시기에 쟁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U'자형쇠날을 장착한 따비, 화가래 등의 사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 쇠스랑 (그림 9)

쇠스랑[鐵齒擺]은 3개의 발이 하나의 투겁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현재 농가에서 기름을 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삼국시대 제주도에서는 땅을 일구는 도구로서 사용하였다. 이로 보아 쇠스랑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논과 밭을 막론하고 땅을 정지하는 작업구나 흙을 부수는 농구로 사용되



[그림 9] 'U'자형쇠날·쇠스랑·살포

- ①파주 해음원지 ②청주 봉명동 IV지구 B-13호 ③청주 봉명동 IV지구 C-25호 ④대전 상대동 12호건물지
⑤대전 가오동 1호건물지 ⑥청주 봉명동 IV지구 B-2호 ⑦거창 천덕사지 ⑧진도 용장성

었다. 고려시대의 출토품은 청주 鳳鳴洞유적 IV지구 B-2호 土壙墓, 거창 天德寺址, 진도 龍藏城 등에서 발견되었다.

쇠스랑은 두 가지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I 식은 발이 짧고 발끝이 뾰족하며, 투겅이 길게 뻗어 자루와 연결된 것이고 II 식은 발이 길고 발끝이 무디며, 투겅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은하수 2003, 김재홍 2005). I 식은 주로 단단한 흙덩이를 부수고 땅을 파는 데 유리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고구려 지역에서 많이 출토된다. II 식은 발이 길어 진흙 땅에 적합하여 주로 남부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I 식은 이후에도 계승되어 신라 통일기, 고려·조선시대의 유적에서 많이 출토된다.

삼국시대 고분에서 ‘U’자형쇠날과 쇠스랑이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두 農具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李昉運의 颯風七月圖(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7 : 도판 46-2)에 ‘U’자형 쇠날(화가래)과 쇠스랑을 이용한 農作業이 묘사되어 있어 이것이 후대에도 계승하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곽종철 1991 : 91).

(6) 살포 (그림 9)

고려시대의 것은 고양 中山地區 더부골고분 59호 토광목관묘, 대전 加吾洞 제1建物址 등에서 출토되었다. 가오동 제1건물지 출토품은 날과 투겅의 경계부분에서 꺾여 올라가는 형태로서 유일한 예이다. 조선시대의 살포로는 경기도박물관 보관 지팡이에 달린 것이 있으며, 의자와 함께 几杖으로 불리고 있다. 제작은 화첩과 함께 보물 930호로 지정되었으며, 의자는 $93.0 \times 77.4 \times 55.0\text{cm}$, 살포 달린 지팡이는 189.5cm 이다(그림 10).

살포는 논에 물꼬를 트거나 막을 때에 사용하는 농구로서 네모 형태의 신부에 가늘고 긴 투겅이 평행하게 연결되어 있는 농구이다. 이것은 중국과 일본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국 고유의 농구라 할 만하다. 이것은 橫穴式石室墓인 공주 수촌리 4호, 창원 가음정동 3호, 김해 구산동 石室墓에서 작은 미니어처 형태로 출토되어 儀禮用 農具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시기의 실용 살포나 회화에 묘사된 실용 살포로 보아 실제로 사용한 농구임을 알 수 있다. 의례용 살포는 기본적으로 논에 물꼬를 트는 수전 농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

으나 수장층의 의례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에도 최고의 관리에게 하사되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이경석의 궤장에 달린 살포이다.

이 살포는 조선 현종 9년(1668)에 임금이 영중추부사 이경석에게 내린 하사품으로 70세가 넘은 신하에게 살포가 달린 지팡이와 의자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살포는 조선 후기에도 실용적인 농구로서 뿐만 아니라 지위가 높은 신하에게 하사할 정도로 권위를 상징하는 수장의 농구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에 연로한 대신을 우대하는 조치로 국왕이 궤장을 하사하는 행사가 있었다. 국왕이 원로



[그림 10] 살포달린 궤장

대신에게 의자와 지팡이를 주는 것은 늙어 쇠약해진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의자에 앉아 편히 쉬라는 의미였다. 궤장은 국가에 공로가 많은 관리에게 하사되었으며, 최초로 궤장을 받은 사람은 삼국 통일의 명장 김유신이었다. 조선시대 궤장을 하사하는 행사는 국왕이 교서와 함께 궤장을 주면, 대상자가 이를 받고 국왕의 은혜에 감사하는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왕은 궤장과 함께 술과 음식을 하사하고 특별히 궁중악대를 파견하여 이를 축하해 주었다.

이경석은 74세의 나이로 궤장을 받았는데, 궤장과 더불어 당시 행사 장면을 그린 기록화(고려대박물관 2001)가 전해진다. 그림은 이경석의 집에서 궤장을 맞이하는 장면, 궤장을 전달한 후에 도승지가 국왕의 교서를 낭독하는 장면, 연회를 베푸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왕이 하사하는 의자[几]는 앉을 때 팔을 기대어 몸을 편하게 하는 기구로 목재로 만든 다음에 붉은 칠을 하였다. 지팡이[杖]도 목재를 사용하였는데, 상단에는 비둘기를 조각하여 붙이고 하단에는 네모난 철판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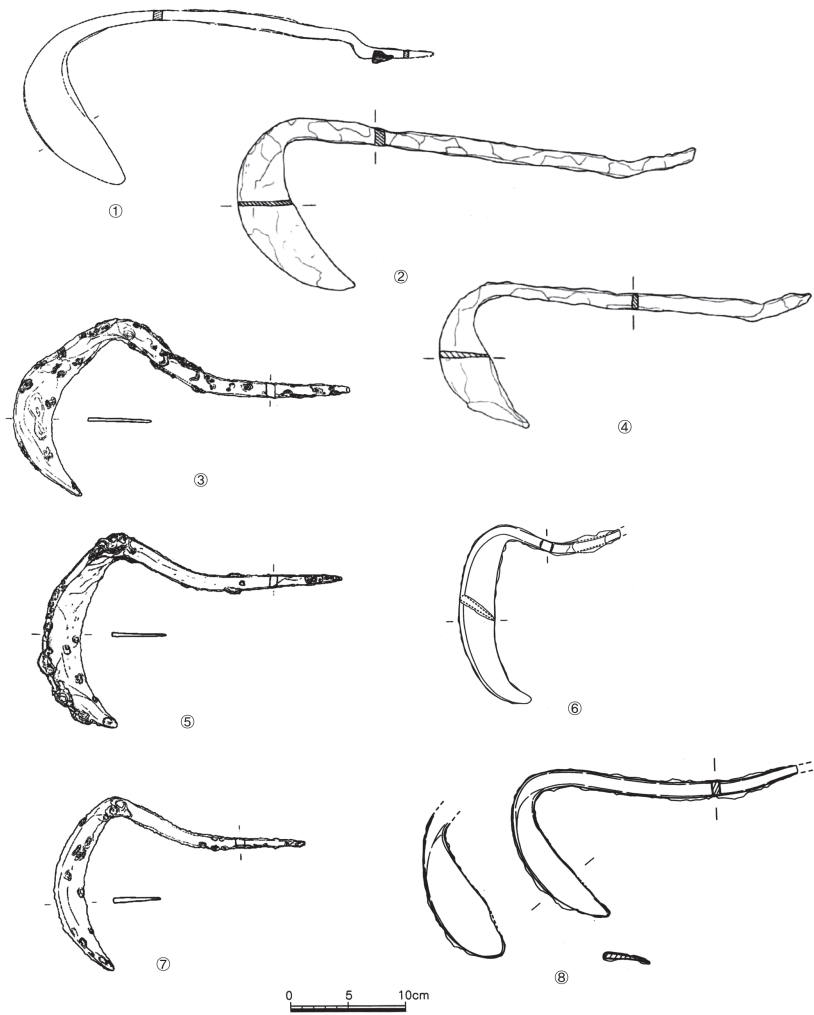
지팡이 하단의 네모난 철판은 삼국시대에 농구로 사용되었던 살포이다. 살포가 달린 지팡이는 늙은 몸을 의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농경국가의 지도자임을 표시하는 상징물이었다. 삼국시대의 살포는 논농사에서 물꼬를 틀 때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물을 제어하는 首長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공주 수촌리 1호·4호, 금산 수당리 12호, 합천 옥전 M3호, 의성 대리고분에 부장된 쇠자루살포이다. 이들 고분은 그 지역 수장들이 묻힌 무덤이라 할 수 있다. 이 고분에 묻힌 피장자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그 지역의 집단들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이다. 여기에서 쇠자루살포는 피장자와 나란히 묻히거나 피장자의 주변에서 출토되어 피장자의 성격을 잘 알려준다. 이로 보아 이 무덤의 주인공은 지역의 수장으로 살포를 짚고 대도를 차고 전쟁을 독려하며 논농사를 장려하는 수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김재홍 2007 : 27).

(7) 호미 (그림 11)

고려시대의 출토품은 수원 古邑城, 충주 崇善寺址, 전 청양 호미(그림 12), 대전 상대동 고려시대 23호 건물지, 대전 加吾洞 石列遺構 등에서 발견되었다. 조선시대의 것은 포천 영송리 건물지 등의 출토품이 있다. 고려시대의 호미는 날부분의 길이가 짧고 너비가 넓으며, 안쪽으로 약간 오목하게 날을 처리하였다. 날에 비해 다소 길어 보이는 슝베가 있고 슝베의 끝이 'S'자형으로 휘어져 있다. 그 형태로 보아 자루가 긴 長柄鋤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의 것은 고려시대의 것에 비해 자루가 장착되는 슝베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고려·조선시대에 호미의 발전방향은 슝베가 긴 것에서 짧은 것으로 변하고 있으며, 날의 너비에 비해 길이가 지나치게 긴 낮형 호미에서 길이가 점차 짧아지는 호미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슝베의 길이도 짧아지는 것으로 보아 나무자루도 짧은 단병서로 변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미는 김매는 除草用 農具이지만 시기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날이 네모난 형태로서 후대의 호미와 구별하여 鐵鋤라고도 한다(김재홍 1997). 철서는 4~6세기경의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는데, 비록 수량은 많지 않으나 독특한 형태의 농구로 주목된다. 이것은 신부의 길이에 비해 짧은 투



[그림 11] 호미

①수원 고읍성 ②·③충주 송선사지 ④3대전 가오동 1호건물지 ⑤대전 상대동 23호건물지 ⑥~⑧포천 영송리 건물지

굽을 가진 것으로 ‘ㄱ’자형의 자루를 끼워 사용하였다. 이것은 창녕 교동 3호에서 출토된 鐵柄附鐵斧(鐵鋤)의 형태로 보아 호미와 같은 除草具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덤에서는 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출토되나 생활유적에서는 날의 양끝에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삼국시대 말기인 7세기 이후에 현재의 호미와 유사한 형태이며 날이 좁고 날카로운 호미(낮모양 호미)가 나타난다(김재홍 1997 : 13~15). 삼국시대 말기인 7세기에 해당하는 상주 병

성동·헌신동 3-3호 石室墓에서 현재의 호미와 유사한 것이 출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조건상 김매기를 하지 않으면 잡초로 인하여 좋은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호미의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안압지 출토의 호미도 전체 길이 16.7cm, 날 최대너비 4.5cm로 오늘날 일반적인 삼각형 호미와는 다른 낫모양 호미이다. 이러한 낫모양 호미는 도서지방과 산간부락 등 자갈이 많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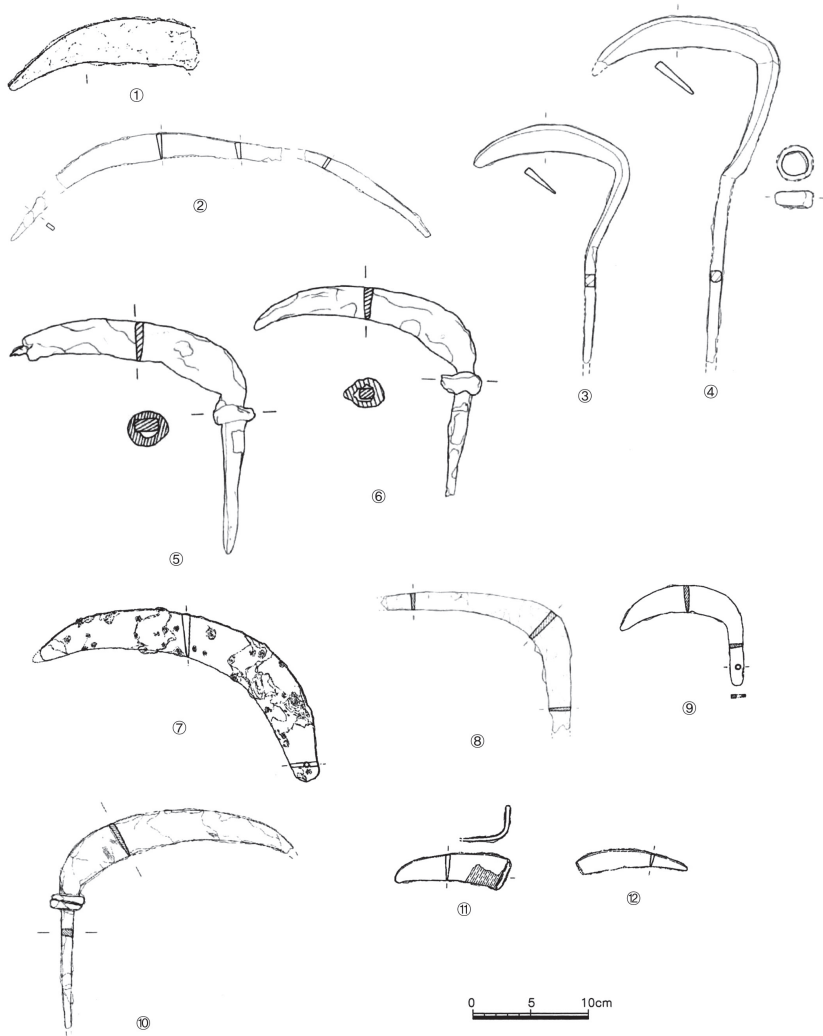
[그림 12] 전 청양 출토 호미

대에서 쓰이고 있는 낫형 호미와 유사하며 북한의 대동강 이북에서 청천강 이남에 이르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베루개나 날호미와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위은숙 1993 : 326~7). 호미는 동아시아와 같이 장마철에 강수량이 많은 지역(飯沼二郎·堀尾尙志 1976 : 8~13)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농구의 하나로서 여름철에 왕성하게 자라는 잡초를 제거하는 데에 주로 이용되었다(이춘녕 1989 : 46~54).

(8) 낫 (그림 13)

고려시대의 낫은 파주 혜음원지, 화성 長芝里 II 지구 KM004 土壙木棺墓, 용인 麻北里寺址, 평택 宮里유적 溝, 충주 崇善寺址, 충주 老鷄마을 야철유적 B지구 1호 추정공방지·D지구 3호 매납유구, 아산 대추리 고려시대 4호 건물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조선시대의 낫은 포천 영송리 건물지, 광주 廣州鄉校, 용인 壬辰山城, 원주 盤谷洞 石築遺構, 진주 武村里유적 1丘 159호 土壙墓·2丘 77호 土壙墓 등에서 발견되었다.

고려·조선시대에 낫은 기본적으로 3가지 계통이 있다. 하나는 날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으며, 아주 짧은 스킴베에 원형 구멍이 뚫려 자루대에 못으로 연



[그림 13] 낫

①파주 혜음원지 ②평택 궁리유적 ③·④용인 마북리사지 2호 석축 ⑤·⑥충주 송선사지 ⑦포천 영송리 건물지
⑧광주향교 ⑨용인 임진산성 ⑩원주 반곡동유적 ⑪진주 무촌리 2구 77호 ⑫진주 무촌리 1구 159호

결하는 형식이다. 날이 두텁고 육중하며 날이 굽은 낫공치 안쪽에서 스페 위까지 날을 세운다. 대표적인 예가 포천 영송리 건물지에서 출토된 낫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가 조선시대 회화작품에 보이는데, 심사정의 <벼베기>에 나오는 조선낫이다. 다른 하나는 날의 길이가 길고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형태이며, 긴 스페와 더불어 자루대를 연결하는 고정하는 낫갱기가 있는 형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충주 송선사지와 원주 반곡동유적의 출토품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가 조선시대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 <대장간>에 보이는 낫이다.

이와 다른 특이한 형태가 용인 마북리사지 출토품이다.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 그 크기가 크고 스펀도 비상하게 긴 형태이다. 이것은 스펀의 일부까지 날이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벼나 보리를 베기 보다는 수수대나 옥수수 등을 베기 좋은 형태이다. 이러한 쇠낫은 세초를 할 때 사용하였던 ‘長柄大鎌’(鄭招 農事直說：種大小麥 附春粃篇)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표 1] 고려시대 철제 농구의 출토 현황

連番	地域	遺蹟名	出土 鐵製 農具類									性格			
			보습	벼	'U'자	따비	쇠스랑	호미	괭이	살포	낫		기타		
1	파주	해음원지	1		1							1		사지	
2	고양	더부골고분										1	37	2	토광묘
3	안산	大阜島 六谷 23호	1												토광묘
4		六谷 4호				1									석곽묘
5	화성	장지리 KM004											1		토광묘
6	용인	麻北里寺址	2			4			2				3		건물지
7	수원	九雲洞 4호							6						주거지
8		古邑城							1						성
9		靈通 고려유적							1						피트
10	평택	芝山洞유적				2									건물지
11		宮里유적				1							1		溝
12	강릉	神福寺址				2									교란층
13	원주	居頓寺址				2									건물지
14	충주	崇善寺址	1						2				2		사지
15		老鷄 冶鐵遺蹟	多	2		6							2		冶鐵
16	청주	鳳鳴洞 IV-B2호					1								토광묘
17		鳳鳴洞 IV-B4호							1						토광묘
18		鳳鳴洞 IV-B13호			1										토광묘
19		鳳鳴洞 IV-C25호			1				1						토광묘
20	옥천	백지리				1									상층
21	대전	加午洞 1호 건물지							1			1			상층
22		상대동 12호			1										건물지
23		상대동 13호				2									건물지
24		상대동 17호				1									건물지
25		상대동 19호				2									건물지
26		상대동 23호	1						1						건물지
27	아산	대추리 1호	1			1									건물지
28		대추리 2호				1									건물지
29		대추리 4호							1						건물지
30	상주	城洞里 건물지				2									건물지

連番	地域	遺蹟名	出土 鐵製 農具類									性格	
			보습	벗	'U'자	따비	쇠스랑	호미	괭이	살포	낫		기타
31	고령	池山洞				1							지표
32	경주	花川里 15호				1							토광묘
33		花川里 16호				1							토광묘
34		勿川里 Ⅲ-2호				1							토광묘
35	거창	天德寺址	1			8	1						사지
36	장흥	上芳村 B-16호				1							積石遺構
37	진도	龍藏城					1						성

2) 農具 출토 遺蹟의 성격

고고학 자료에 보이는 고려·조선시대의 철제 농구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쟁기, 주조괭이, 코끼리이빨따비, 'U'자형쇠낫, 쇠스랑, 살포, 호미, 낫 등이 있다. 이를 다시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같이 농구(쟁기·'U'자형쇠낫·따비·괭이), 삶는 농구(쇠스랑), 물 대는 농구(살포), 김매는 농구(호미), 거두는 농구(낫)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후와 관련하여 가장 발달한 농구는 쟁기, 살포, 호미이다. 쟁기는 벗 달린 無床犁가 발달하였고 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대기는 살포라는 독특한 농구를 발달시켰다. 특히 호미는 김매는 작업이 가장 긴요한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에 맞는 농구이다. 중세·근세의 농구는 선사·고대의 것에 비해 종류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능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1]과 [표 2]이다.

[표 2] 조선시대 철제 농구의 출토 현황

連番	地域	遺蹟名	出土 鐵製 農具類									性格	
			보습	벗	'U'자	따비	쇠스랑	호미	괭이	살포	낫		기타
1	포천	영송리건물지						3			1		건물지
2	광주	廣州鄉校									1		건물지
3	용인	壬辰山城									1		성
4	홍천	物傑里寺址				1							사지
5	원주	盤谷洞									1		석축유구
6	보령	聖住寺址 2호				2							건물지
7		聖住寺址 지표	1										지표
8	논산	水湯石橋	1	1									다리
9	경주	萬歸亭址	1										건물지
10	양산	所土里 15호				2							토광묘
11	진주	武村里 1구 159호									1		토광묘
12		武村里 2구 77호									1		토광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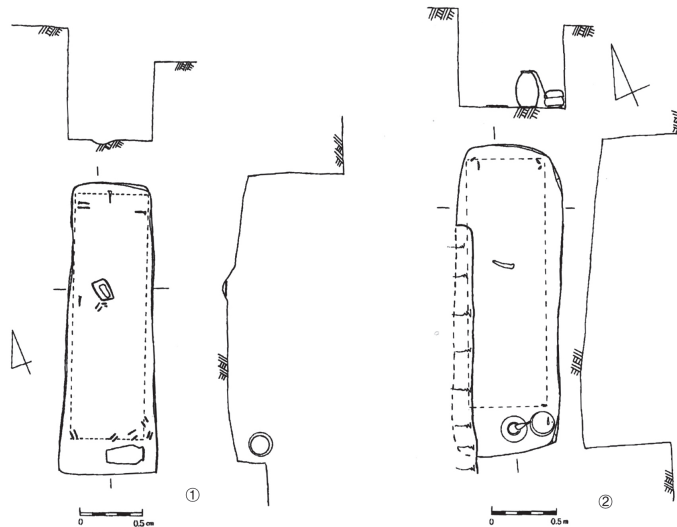
고려·조선시대의 철제 농구를 출토하는 유적은 성격상 2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무덤유적과 생활유적이다. 무덤유적에는 土壙木棺墓와 石槨墓가 있는데, 고려·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다. 토광목관묘는 가장 성행한 무덤으로 발굴과정에서 목관의 흔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지만 棺釘이나 관고리 등을 통하여 추정 가능성이 있다. 토광목관묘에서는 보습, ‘U’자형쇠날(화가래, 따비, 가래 등의 기능), 주조쟁이, 코끼리이빨따비, 쇠스랑, 호미, 낫 등 대부분의 철제 농구가 출토되었다. 보습은 안산 대부도 육곡 23호에서 출토되었는데, 삼국시대 상원 소구절 2호 횡혈식석실묘와 안변 용성리고분에서 출토된 예와 더불어 무덤에서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頭部가 깨어져 나가 없으며 날 부분도 깨진 상태에서 부장된 것으로 장송의례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습으로 추정되는 철제 파편이 경주 勿川里 고려시대 Ⅲ-2호 토광묘에서 발견되었는데, 의도적으로 깨어서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 내에 농구를 훼손하여 넣는 행위는 死者를 현실과 결별시키는 의례와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유력 개인 무덤에 농구를 부장하는 예는 흔하지 않으며, 보습의 개인 소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이다. 보습은 주로 사찰이나 관청의 건물지에서 출토되므로 국가나 공공의 건물과 관련을 가진 예가 많다. 그러나 농구의 사적 소유와 관련하여 유력 개인의 무덤에도 부장되기 시작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石槨墓에서는 코끼리이빨따비만 1개 출토되었는데, 안산 대부도 六谷 4호 석곽묘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무덤유적은 경기도 고양·안산·화성, 충북 청주, 경북 경주, 경남 양산·진주 등 전국적인 분포에서 확인된다. 앞으로 고려·조선시대 무덤유적의 발굴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된다면 더 늘어날 것이다.

농구의 무덤 부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가 고양 中山地區 더부골고분의 것이다. 무덤군에서 각 무덤마다 일정한 수량의 농기구가 부장된 예로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걸친 무덤군이다. 석곽묘 1기와 더불어 65기의 土壙木棺墓가 발굴조사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토기호, 청자 대접·접시, 靑銅鉢, 청동 匙箸, 鐵製 農具이다³⁾. 토기와 청자, 청동 숟가락·젓가락은 목관과

3) 부장된 철기는 크게 鐵鎌과 板狀鐵器로 나눌 수 있으나 관상철기는 편으로 부장되어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거나 쇠낫일 가능성이 있다.

묘광 사이에 묻었으며, 농구는 木棺 밑에 매납하였다. 철제 농구를 시신이 안치된 목관의 바로 아래에 묻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철제 농구를 매납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는데, 무덤 바닥에 腰坑을 파서 그 안에 묻는 방법과 목관 아래 바닥 위에 매납하는 방법이 있다(그림 14). 전체 65기의 목관묘에서 요갱에 매납한 경우는 23개이고 목관 아래에 매납한 예는 16개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요갱이 중요시 되는 무덤군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요갱에 철기를 매납하는 방식은 이후 시기에 확인된다. 16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파주 성동리 토광묘에서 요갱 안에 철제 도자를 매납하고 있다(고려대 박물관 1992).



[그림 14] 고양 중산지구 더부골 무덤의 철기부장양상 (①8호 요갱내 철기부장 ②20호 목관 아래 바닥 철기 부장)

매납된 農具(표 3)는 鐵鎌(板狀鐵器), 살포, 쟁이가 있다. 농구의 대부분은 쇠낫이며, 61호와 62호 토광목관묘에서는 ‘ㄱ’자형의 나무자루 흔적이 확인된 쟁이가 출토되었다. 낫은 기본적으로 벼나 곡물 등을 거두는 농구[收穫具]이지만 무덤에 부장되면서 의례와 관련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무덤에서는 살포, 쟁이 외에는 대부분 낫인 거두는 농구[收穫具]가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대지주보다는 소지주나 자영농민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보습이나 따비 등 같이 농구나 쇠스랑 등 삶의 농구가 전혀 출토되지 않고 낫 등 거두는 농구

[표 3] 고양 중산지구 더부골고분 토광목관묘 출토 철제 농구

연번	유구	규격(cm)	요강	鐵鎌(cm)			鐵片(cm)			살포(cm)			비고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너비	두께	길이	너비	두께	
1	3호	64×200×75	×	16.3	5.3	0.2							
2	4호	61×180×70	×				9.0	9.0	0.6				
3	8호	72×230×70	○	12.5	4.4	0.2							
4	9호	68×230×60	○				13.0	9.0	0.8				
5	12호	63×246×80	×	7.0	4.0	0.3							
6	13호	87×250×87	○				5.4	3.4	0.4				
7	15호	64×210×60	×	9.6	2.4	0.2							
8	16호	71×205×60	×	8.0	3.0	0.4							
9	17호	70×232×70	×	15.5	3.5	0.2							
10	18호	76×240×57	×	8.5	3.5	0.3							
11	19호	64×220×92	×				3.0	3.4	0.4				
12	21호	76×230×60	○	10.0	5.0	0.3							
13	22호	68×220×63	○	13.0	4.0	0.3							
14	26호	77×215×60	○	11.0	3.5	0.3							
15	27호	62×210×62	×	16.0	4.2	0.4							
16	28호	65×200×50	○	12.0	4.0	0.3							
17	30호	68×242×45	○	13.5	4.2	0.3							
18	31호	75×226×64	○	18.5	3.6	0.3							
19	32호	70×240×83	○				5.5	4.8	0.4				
20	34호	70×250×80	×	15.0	5.0	0.2							
21	35호	160×270×70	○	12.0	3.6	0.4							합장묘
				10.0	4.0	0.4							
22	36호	76×260×70	×	22.5	6.2	0.3							
23	38호	80×240×50	○	11.0	5.0	0.4							
24	39호	70×220×60	×				8.6	4.0	0.3				
25	40호	66×245×60	○				4.8	4.2	0.4				
26	41호	75×260×75	○	9.0	4.2	0.4							
27	43호	85×210×60	○	11.5	4.5	0.3							
28	44호	65×180×50	○	17.4	3.2	0.3							
29	46호	88×245×60	○	11.7	5.0	0.4							
30	47호	80×216×74	○	12.2	2.5	0.3							
31	48호	75×227×60	○	11.0	3.7	0.5							
32	49호	58×215×73	○	12.0	4.0	0.3							
33	54호	83×214×107	○	8.0	5.0	0.3							
34	57호	76×217×70	×				8.0	8.0	0.4				
35	59호	72×240×96	×							21.0	9.0	0.5	
36	61호	62×204×89	×				17.0	6.5	0.5				괭이류
37	62호	78×215×68	×				12.0	6.5	0.6				괭이류
38	63호	69×210×62	×	14.0	5.0	0.4							
39	64호	65×235×105	○	9.0	5.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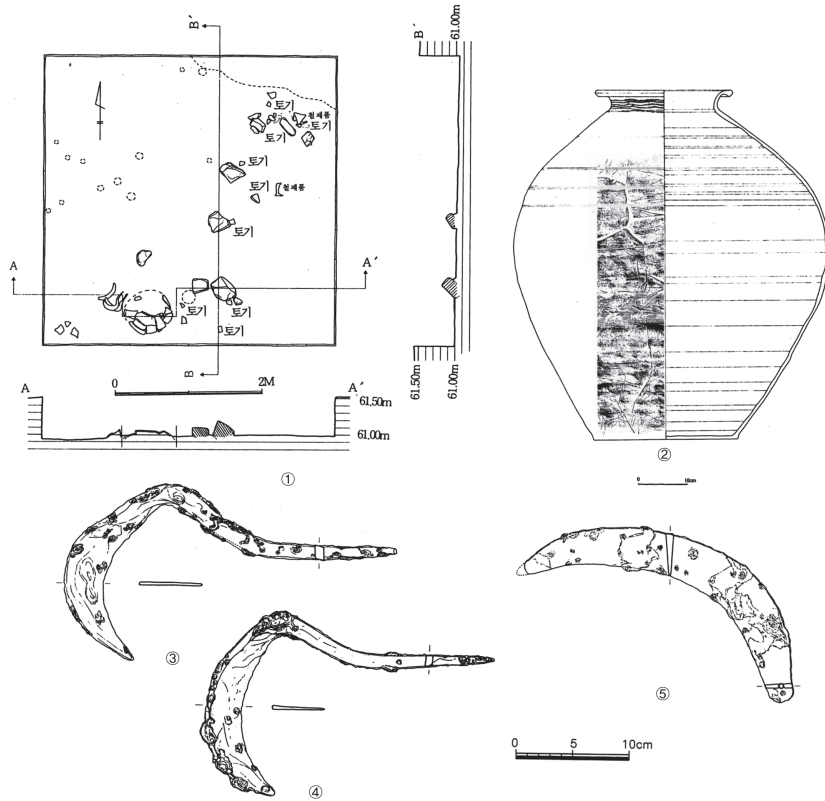
가 주로 부장된 것에서 알 수 있다.

生活遺蹟은 사원터, 住居址, 建物址, 城, 다리[石橋]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원터로는 파주 혜음원지, 용인 마북리사지, 강릉 신복사지, 충주 송선사지, 거창 천덕사지 등이 있다. 수혈주거지로는 수원 구운동 4호 고려시대 주거지가 있고 건물지로는 수원 영통 고려유적, 평택 지산동유적, 대전 상대동 건물지, 아산 대추리 건물지, 상주 성동리 건물지, 장흥 상방촌유적, 포천 영송리 건물지, 광주향교, 원주 반곡동 건물지, 경주 만귀정지 등이 있다. 건물지에서 농구가 출토되었으나 유적의 성격이 야철지인 경우도 있는데, 충주 노계야철유적이 대표적이다. 城으로는 수원 고읍성, 진도 용장성, 용인 임진산성 등이 있다. 다리유적으로는 水湯石橋가 있으며, 19세기 후반의 철제 보습과 벗이 출토되었다. 삼국시대에는 주로 무덤유적에서 철제 농구가 출토되는 비율이 높으나, 고려·조선시대에는 무덤과 더불어 사원터·建物址·城과 같은 生活遺蹟에서 출토되는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적은 그 성격상 개인의 무덤이나 家屋이 아니라 국가나 지배층과 관련이 있는 구조물로 판단된다.

건물지에서 출토된 농구 중에서 철제 농구의 埋納儀禮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격을 가진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地鎮具(鎮壇具) 혹은 農耕儀禮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매납의례에 해당하는 농구는 대부분 구덩이[竪穴]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농구를 구덩이에 바로 매납하는 경우와 대옹이나 쇠솔 등에 넣어 매납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大甕과 나란히 또는 그 안에 매납하는 경우이다. 포천 영송리 건물지에서는 대옹의 옆에서 호미 2점과 낫 1점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다(그림 15). 철제 농구는 대옹의 옆에 있지만 대옹이 깨어지면서 옆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호미와 낫은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사용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의례와 관련하여 매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옆의 다른 건물지에서도 호미와 대옹이 출토되어 대옹과 농구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 대옹 자체도 의례와 관련하여 건물 내부에 매납되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아산 대추리 고려시대 4호 건물지의 대옹이다. 4호 건물지에서는 2개의 대옹과 하나의 短頸瓶을 의도적으로 매납하고 있다.

다음으로 쇠솔에 넣어 묻는 경우이다. 충주 老鷄마을 冶鐵遺蹟(그림 16)



[그림 15] 포천 영송리 건물지 대웅 및 농구 출토상황 (①출토상황 ②대웅 ③·④호미 ⑤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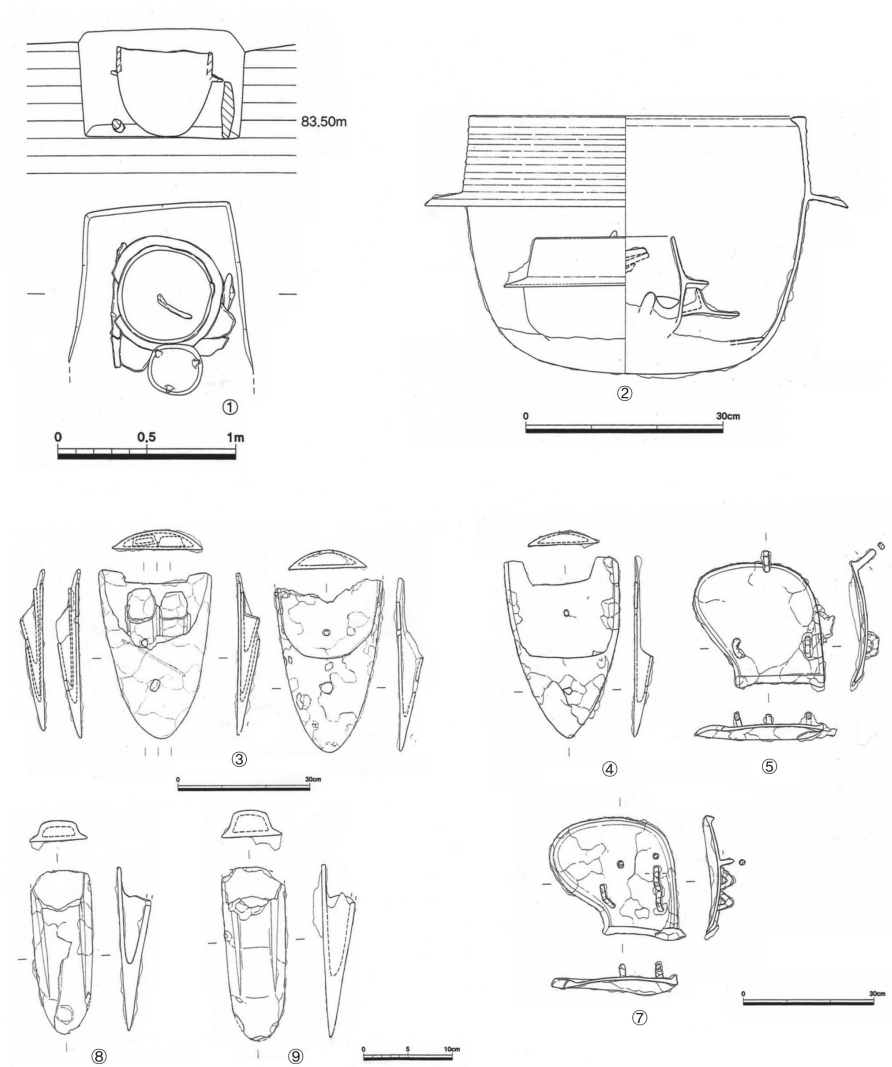
에서는 철기를 다량으로 묻은 매납유구가 3기 발견되었다. 각각의 구덩이 안에는 1개의 무쇠술 안에 다량의 農具가 깨진 상태나 완형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중에서 3호 매납유구는 평면 형태가 장방형이고 그 중앙에 무쇠술을 바로 안치하고 남으로 鼎을 얹어 묻었다. 둥근 바닥의 무쇠술 주변으로 보습과 벧, 棒狀鐵器 등의 철기를 놓아 술을 지탱하였다. 술 내부에는 완형이거나 파손된 형태의 보습과 벧, 코끼리이빨따비, 낫 등의 농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산 대추리 고려시대 4호 건물지 수혈유구에서는 내부에 토기 시루 2개체와 더불어 호미 3점⁴⁾ 탄재와 함께 수습되었다. 호미가 시루 속에 매납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호미와 시루를 별개로 구덩이에 매납한 것인지는 보고서의 기술로는 알기 곤란하다. 만약 시루 속에 넣어 매납하였다면 위의 대웅 속의

4) 보고서에는 낫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그 형태가 영송리 호미와 비슷한 낫형 호미로 분류된다.

매납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구덩이에 바로 묻는 예로 분류한다.

이러한 형태로 철기를 묻은 매납유구는 용인 언남리유적, 창녕 말흘리유적, 고성 송현리유적, 장도 청해진유적 등에서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신라 통일기에 해당하고 노계유적과 대추리유적은 고려 초기에 해당한다. 송현리, 언남리, 노계마을, 대추리 등의 유적에서는 농구를 집중적으로 매납하고 있어



[그림 16] 충주 노계마을 아철유적 쇠술 및 농구 출토상황
 (①출토상황 ②쇠술 ③~⑤보습 ⑥·⑦벗 ⑧·⑨코끼리(빨따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구를 묻기 위해 사용하거나 구덩이에 함께 묻은 용기는 대웅, 시루, 무쇠솥 등으로 곡물을 담아두거나 炊事와 관련된 용기이다. 곡물을 갈고 수확하는 농구와 이를 저장하거나 취사하는 용기가 함께 매납되었다는 것은 농경과 관련된 행위이다. 이러한 매납유구의 성격을 제사의 공헌, 退藏, 단순 저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으나 농구를 매납한 유구의 경우에 농경의례와 관련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농구를 건물에 매납함으로써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였던 것이다. 물론 농경과 관련된 농구나 용기이지만 건물 내부에 묻혔다는 측면에서는 地鎮具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2. 農書 속의 농구

고려시대 쟁기의 실물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쟁기질을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高麗史』에는 당시 籍田 경작에 쟁기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실생활에서도 역시 쟁기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서공이 저술한 『高麗圖經』에서도 고려의 농구는 송나라와 비슷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역시 송과 비슷한 쟁기질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조선 전기 농구는 『農事直說』에서 잘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농구 체계와 농작업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쟁이·호미 등과 같이 인력에 의한 농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경·쇄토 과정에 필요한 농구가 체계화되어 있는 점을 들어 『農事直說』의 농구체계는 대농적 경영으로부터 벗어나 조선 독자의 小家族經營을 확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평가하는 견해(宮嶋博史 1977)가 있다. 또한 『농사직설』의 농업경영방식은 畜力農具를 기본적인 동력으로 하고 다수의 人力農具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축력농구와 인력농구의 적절한 결합에 의한 농작업은 15인 전후의 단순 협업단계의 노동조직이 동원되는 大農法이라고 파악하는 견해(이호철 1986)가 있다.

조선 후기가 되면 농서에서 농구를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즉 『海東農書』와 『課農小抄』에서 農具를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王禎農書』와 청나라 徐光啓가 편찬한 『農政全書』에 실려 있는 중국의 농구

와 당시 조선에서 사용되는 농구를 비교하면서 중국의 농구로부터 장점을 취하는 반면 조선 고유의 농구인 호미와 가래 등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장점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 『才物譜』(1798년), 『物譜』(1820년) 등의 어휘집을 통해서 농구의 양적인 증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증가는 조선 후기 농구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 전기의 농구는 40여종으로 파악되는데, 조선 후기의 농구 숫자는 『과농소초』에 50여종, 『물보』에 92종, 『재물보』에 191종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용도의 노동수단이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1) 같이 농구[起耕具]

(1) 쟁기 [犁]

고려 · 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농구는 같이작업에 사용된 쟁기였다. 쟁기날인 보습은 고구려에서 4세기부터 사용되었고 백제 · 신라에서도 늦어도 6세기에는 사용되었다. 그리고 보습에 붙은 벼는 신라 통일기 이후 고고학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이로 보아 적어도 신라 통일기에는 벼 달린 쟁기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5세기 농서인 『농사직설』의 본문 속에는 쟁기를 의미하는 ‘犁’라는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牛耕’, ‘掩耕’ 등 起耕을 의미하는 단어 용례와 “兩畝間을 淺耕하여 大豆를 파종하고, 兩麥을 수확한 다음 麥根을 갈아서 豆根을 덮는다”라는⁵⁾ 표현은 쟁기의 항상적인 사용을 알려주고 있다(염정섭 2002). 쟁기는 주로 같이 작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소를 이용한 우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쟁기의 구조 문제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벼[瓣]의 有無라고 할 수 있다. 벼의 기능은 쟁기날인 보습이 파 올린 흙덩이, 즉 쟁기밥을 완전히 反轉시켜 토양의 전면적인 起耕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쟁기날이 들어가는 깊이에 자리하고 있는 하층의 토양을 상층으로 끌어올리는 데 절대적으

5) 『農事直說』, 種大豆小豆菘豆. 淺耕兩畝間 種以大豆 收兩麥訖 又耕麥根 以覆豆根 (『農書』 1, p.18).

로 필요한 부속품이 바로 벧이었다. 조선 전기에 벧 달린 쟁기가 있었는가는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신라 통일기에 벧 달린 쟁기가 발견되었고 그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이미 진한시대에 벧 달린 쟁기가 사용되었고 일본에서도 8세기경에 벧 달린 쟁기가 사용되었다는 문헌기록이 있다. 또한 이전에는 15세기에 벧 달린 쟁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견해(민성기 1989 : 216)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조선 전기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벧 달린 쟁기를 사용하였다고 한다(위은숙 1993).

(2) 따비 [耒耜]

쟁기 외에 같이작업에 사용한 농구로 따비가 있다. 따비는 예로부터 개간에 이용하는 농구였다. 조선 전기 농서인 『농사직설』에서 따비는 低濕地 등을 개간할 경우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저습지를 최초로 갈아서 전토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데에는 輪木이라는 농구도 이용하였다. 輪木으로 잡초를 제거한 다음 晚稻를 파종하여 재배하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따비를 사용하여 기경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비는 『訓蒙字會』에도 “耒 싸보 립”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널리 이용하는 농구였다.

2) 삶는 농구[熟治·摩平具]

起耕한 뒤에 수행하는 熟治·摩平 작업은 대략 治田이라는 범위에 들어가는 작업이었다. 『농사직설』에서는 간략히 ‘治’라고만 표현하고 있다⁶⁾. 治田 작업은 起耕한 뒤에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전답을 熟治하여 전토 토양층의 토양 입자를 고르게 분포하도록 만들고, 摩平을 통해 전토 표면을 평평하게 골라서 파종에 대비하게 하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밭의 경우는 畝畝를 만들어 파종처로 사용하는 作畝作業을 포함하는 것이었다(염정섭 2002). 水田과 旱田의 熟治와 摩平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농구가 이용되었다. 주된 농구가 씨레(鄉名 所訖羅)와 쇠스랑(鐵齒擺, 鄉名 手愁音)이었다. 『농사직설』에는 熟治와 摩平에 사용되는 도구가 木斫과 쇠스랑으로 나와 있다. 木斫은 鄉名이 所訖

6) 『農事直說』, 耕地. 春耕 則隨耕隨治 秋耕 則待土色乾白乃治 (『農書』 1, p.8).

羅이고, 쇠스랑은 鄉名이 手愁音으로 되어 있다. 『농사직설』에서 木斫을 所訖羅로 표시한 것은 熟治·摩平에 사용하는 씨레를 지칭한 것이었다. 쇠스랑은 중국에서는 鐵搭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杷와는 구별되는 농구였다.

起耕에서 熟治에 이르는 전토 정돈 작업에 동원되는 농구로 가래가 있었다. 가래질하는 상황이 『농사직설』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래는 『훈몽자회』에 한자어 杓字로 표기되는 농구였다⁷⁾. 고대로부터 농경작업에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농작업에서도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水田의 논고르기 등 田土 정리작업 등에 사용된 가래는 주로 3인이 1조가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도구였다. 또한 가래는 水田의 물고랑을 정비하거나, 논두둑을 정리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3) 씨뿌리고 고르는 농구[覆種具]

파종하는 데 사용한 농구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중국의 경우 耬車라는 농구를 이용하여 파종에 사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조선의 경우 이에 병칭할 만한 농구가 없었다. 대신 水田과 旱田의 覆種用 농구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선 『농사직설』 種麻條에 보이는 撈(鄉名 曳介)라는 농구가 복종용 농구로 사용되었다. 논에서 벼 재배의 복종용 농구로 板撈와 把撈를 사용하였다. 板撈는 鄉名이 번지이고, 把撈는 鄉名이 밀개였다. 번지는 논과 밭의 흙을 고르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축력 농구로도 사용되었다. 반면에 밀개는 현재의 고무래로 人力을 이용하여 흙을 밀어 고르게 만드는 도구였다(민성기 1990 : 16).

4) 김매는 농구[除草具]

제초는 작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잡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농업생산에 반영되지 않는 이른바 쪽정이를 없애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다. 『農事直說』에서 잡초 제거와 쪽정이를 없애는 작업은 手耘이라고 하여 손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호

7) 崔世珍, 『訓蒙字會』, 器皿(동양학총서 1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p.81). 杓(가래흙 俗呼 木杓 又鐵杓 늘가래).

미를 이용하였다. 제초작업은 투쟁가 들기 시작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멈추어서는 안 되었다(『世宗實錄』). 수전과 한전 모두에서 제초는 농민의 손으로 수행하던가 아니면 호미를 이용하였다. 제초를 실시할 때의 수전은 일반적으로 한해가 들지 않은 조건이라면 물에 적셔 있는 상태였다(『東文選』). 기본적인 제초용 농구인 호미의 형태는 앉는 자세로 제초작업을 수행하는 현재 통용되는 것과 형태적으로 동일하였다.

서서 제초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耨鋤라는 것은 중국의 王禎의 『農書』에 보인다. 耨鋤는 총 길이가 5자 이상으로 상당히 긴 농구로 북방의 陸田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남부지방의 호미는 長柄鋤인 耨鋤와는 달리 앉아서 제초작업하는 데 적합한 것이었고, 따라서 호미의 자루가 短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부지방의 호미는 중국의 것과 같이 장병서일 가능성이 높다(이호철 1986).

5) 거두는 농구[收穫具]

『농사직설』의 수확용 농구는 낫이었다. 낫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단어는 黍粟木麥根田에 대소맥을 根耕으로 경작할 때 미리 풀을 베어 시비재료를 만들게 권장하는 조목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長柄大鎌뿐이었다. 長柄大鎌이 기다란 자루가 달린 낫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확 작업에도 낫을 동원하였음이 분명하다. 수확 작업에 낫을 이용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이었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농구는 보이지 않는다.

6) 터는 농구[打作具]

작물을 수확한 다음 사람이 食用으로 이용하려면 일련의 도정작업을 거쳐야 했다. 우선 곡물의 낱알을 떨어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런 다음 낱알에서 겉껍질과 속껍질을 차례로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후자는 打作이고, 전자는 搗精이었다. 타작에 동원되는 농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리개를 이용하였다. 도리개는 타작할 때만이 아니라 저습지 개간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⁸⁾. 도리깨 이외에 그네·개상과 같은 농구를 수확작업에 사용하였다. 알곡을 타작해 낸 다음 알곡 무더기에 섞여 있는 자잘한 부스러기, 쭉정이 등 잡티를 제거하거나 종자용 곡물을 받아내는 데는 키를 이용하였다⁹⁾.

이와 같이 農書에 보이는 농구는 갈이(쟁기, 따비) - 삶기(씨레, 쇠스랑) - 고르기(번지, 고무래) - 김매기(호미) - 거두기(낫) - 털이(도리깨·개상) 등의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농구의 대부분은 고고학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으나 나무로 만든 씨레, 번지, 고무래 등은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 목재 농구는 부식되어 남아 있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3. 繪畵에 묘사된 농구

회화 작품에 농경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 불교 회화에서부터이다. 회정이 그린 <彌勒下生經變相圖>(1350년)에는 소를 몰며 밭갈이를 하거나 벼를 베고 타작하는 한해농사일을 묘사하여 당시 농경을 추정할 수 있다. 이어 조선시대부터는 중국의 <爾風七月圖>와 <耕織圖>의 영향을 받아 농경을 주제로 한 회화작품이 나타난다. 빈풍칠월도는 주나라 농민들이 농업과 잡업에 종사하는 생활을 읊은 일종의 月令歌를 그린 것이다. 조선 초기부터 빈풍칠월도를 그렸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李防運(1716~?)의 <爾風七月圖帖>이 있다. 중국의 누숙이 그린 <耕織圖>는 빈풍칠월도를 바탕으로 농사짓는 모습을 그린 경작도와 길쌈하는 모습을 그린 蠶織圖로 구분된다. 이것은 1696년 청나라 康熙帝의 지시에 의해 焦秉貞이 새롭게 제작한 <佩文齋耕織圖>로 그 전통이 이어진다. 중국 청나라 <佩文齋耕織圖>는 숙종의 지시에 따라 곧 화원인 진재해에 의하여 <耕織圖>와 <蠶織圖> 두 폭으로 나뉘어 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패문재경직도에서 다루는 농경의 장면이나 인물의 모습은

8) 『農事直說』, 種稻: 若沮甚 人牛陷沒 不可入蹈之地 用栲榜(鄉名 都里鞭) 殺草 下種 一如前法 (『農書』 1, p.10).

9) 『農事直說』, 備穀種: 簸揚去秕後 沈水去浮者 漉出曬乾 以十分無濕氣爲度 堅藏蒿箔之類 (『農書』 1, p.7).

조선 후기 농경을 주제로 풍속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예로서 金斗樑(1666~1763)이 사대부의 이상적인 전원 생활을 그린 <사계산수도>를 들 수 있는데 가을 풍경 중 타작하는 모습 등은 전술한 경직도 계통과 강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이수미 2000 : 126~7).

이러한 농경 생활을 시각화한 중국의 회화가 우리나라의 궁정 화단에 전래되어 농경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차츰 우리의 농경도를 그려가게 된다. 한편으로, 사대부 문인 화가들 사이에서는 서민들의 일상 생활을 화폭에 담으려는 풍속화의 새로운 시도 속에서 농경도가 제작된다. 이들은 전통적인 산수인물도의 구도와 표현기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조선의 인물들이 일상적으로 노동하는 모습을 그리게 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尹斗緒(1668~1715)의 <耕沓牧牛圖>를 들 수 있으며, 최근에 조선 후기의 문인 李萬敷(1664~1732)가 그린 <陋巷帖>중의 농경도가 새롭게 소개되어 주목된다. 김홍도(1745~1806?)는 이러한 경작의 소재를 다루면서도 평범한 인물의 풍속과 평범한 자연을 따뜻한 시선으로 결합시켜 農耕圖의 예술성을 한 차원 승화시킨 화가이다.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의 행동만을 부각시켜 그리거나 조선의 야산을 배경으로 노동하는 서민의 희노애락이 정겹게 드러나도록 그려서 조선인의 일상생활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이후 19세기에 접어들면 풍속화의 저변화 현상이 나타나 김홍도의 작품을 범본으로 하여 많은 양의 풍속화가 제작되고, 궁정 회화인 경직도가 민간에 전파되어 민간 수요의 경직도가 성행하게 된다(이수미 2000 : 126~7).

1) 쟁기

사대부 문인화가를 대표하는 尹斗緒의 <耕沓牧牛圖>(그림 17·18)는 경작의 장면을 소재로 한 산수인물화이다. 이 그림에는 화면 왼쪽의 곧게 뻗은 나무와 구부러진 나무의 형세를 기준으로 산 속의 정경이 펼쳐져 있다. 뒤편의 산은 산마루가 운무로 가려져 더욱 깊어 보이고, 그 앞의 비탈진 밭에는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있다. 우



[그림 17] 경담목우도의 쟁기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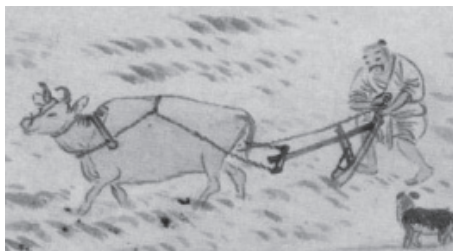
[그림 18] 윤두서의 경담목우도



[그림 19] 김홍도의 경작도

리나라의 전형적인 비탈진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다. 한 사람이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로 가는 호리이며, 우리나라의 비탈진 밭을 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쟁기의 형태는 삼각형의 無床犁로서 산비탈의 농경지를 경작하는데 편리하였다.

김홍도의 <耕作圖>(그림 19·20)는 『丙辰年畫帖』(1796년)에 실린 것으로, 화첩의 산수화 대부분이 단양의 풍경인 점으로 보아 이 그림도 단양의 밭갈이일 가능성이 높다. 이 그림에 나오는 쟁기질은 18세기 당시 단양에서 시행한 밭농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코뚜레, 멩에, 한테, 붓줄, 까막머리, 성에, 한마루, 쟁기술, 보습, 벧, 자부지, 손잡이 등 소가 끄는 쟁기질에 사용된 도구(김광언 1969 : 44 사진 2)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소의 목에 올린 멩에를 붓줄로 이용하여 쟁기에 연결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쟁기가 연결된 한마루와 성에의 부착 형태로 보아 無床犁로 보인다. 그림의 소가 우리



[그림 20] 경작도의 쟁기질

나라의 한우를 닮아 있어 이전 그림에 보이는 중국 화남지역의 무소와는 구별된다. 쟁기도 중국의 有床犁와 달리 無床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쟁기날인 보습은 밭 속에 들어가 있으나 한마루에 고정된 벧의 형상이 그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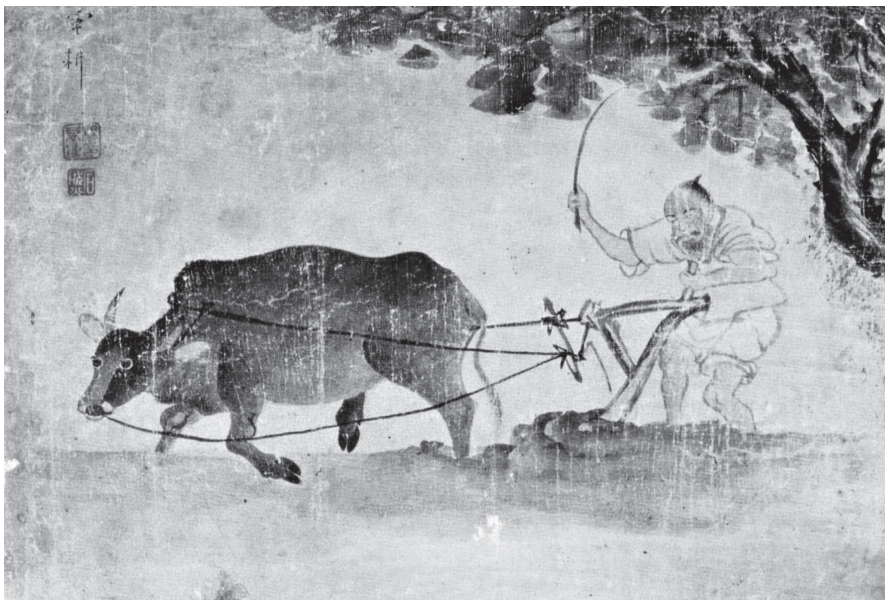


[그림 21] 김홍도의 농갈이

보여 당시의 쟁기 형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이다.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소를 끄는 호리이며, 당시 충청도의 산간 지방에서 이루어진 쟁기질이 한 마리의 소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홍도의 유명한 『단원풍속화첩』 〈농갈이〉(그림 21)에는 당시 쟁기의 독특한 면을 볼 수 있다. 그림에 보이는 쟁기질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겨리이며, 쟁기도 두 개가 달려 있으나 앞

에 보이는 작은 것은 벗일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습은 쟁기술에 달려 있으며 보습 위에 벗은 한마루에 고정되어 있다. 그림에도 한마루에 보습처럼 보이는 것이 달려 있으나 한마루에 고정된 것으로 보아 벗으로 추정된다. 쟁기의 형태로 보아 벗 달린 無床犁이다. 이 그림에는 쟁기질과 더불어 밭의 흙을 부수거나 북돋우는 작업에 쇠스랑을 사용하고 있다. 소가 끄는 쟁기로 밭



[그림 22] 양기훈의 우경도

을 갈고 그 흙덩이를 쇠스랑으로 정지하고 있다. 같이와 삶는 과정을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 있다.

김홍도의 그림이 우리나라 쟁기와 쟁기질을 보여 주는 것과 달리 중국의 농경을 묘사한 화가도 있다. 19세기의 화가 楊基薰의 〈牛耕圖〉(그림 22)는 우리나라의 쟁기질보다는 중국 화남지역의 쟁기질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상단에 걸쳐 있는 나무 밑에서 농부가 채찍으로 소를 재촉하면서 쟁기질을 하고 있다. 소도 우리 한우라기 보다는 중국 華南地域의 무소이며, 쟁기의 형태는 중국 華北地域의 無床犁이다.



[그림 23] 어전준천제명첩의 준설작업

쟁기가 농경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보여주는 회화도 있다. 영조 때 사실을 전하는 〈御前瀋川題名帖〉(그림 23·24)에도 쟁기질이 묘사되어 있다. 이 그림은 하천을 준설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당시의 다양한 농구와 그 작업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한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질과 세 사람이 사용하는 가래질이 표현되어 있다. 이로 보아 농구는 농사일뿐 만 아니라 하천의 준설, 제방의 개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논산 水湯石橋에서는 철제 보습과 벗이 함

게 출토되었다. 이 쟁기는 다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하천을 굴착하는 기능과 관련지을 수 있다.

2) 가래

가래는 호미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형에 가장 적합한 농구임에도 고려·조선시대의 자료는 거의 없다. 농작업이 아니라 하천을 준설하는 작업에 사용된 가래를 표현한 그림이 〈御前瀋川題名帖〉(그림 23·24)이다. 여기에는 쟁기질과 더불어 한 사람이 가래를 잡고 그 앞에서 두 사람이 가래에 연결된 끈을 잡아 당겨 세 사람의 분업작업(세손목 한카래)으로 가래질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가래날의 일부가 'U'자형쇠날이 장착되었는지는 그림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지만 일반적인 예로 보아 쇠날이 장착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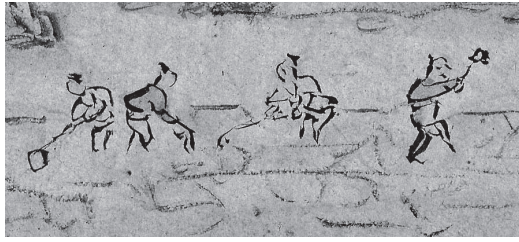
[그림 24] 어전준천제명첩의 쟁기와 가래

3) 화가래

이방운의 〈飏風七月圖〉는 8폭의 그림으로 1년의 농사를 차례로 표현하고 있는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봄의 풍경부터 여름에 김을 매고, 곡물을 걷는 가을 풍경, 겨울의 갈무리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다. 갈무리하는 장면(그림 25)에서 화가래와 쇠스랑으로 논바닥의 흙을 파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



[그림 25] 이방운의 빈풍칠월도



[그림 26] 빈풍칠월도의 화가래와 쇠스랑

(그림 26). 땅을 가는 4인 중에서 가운데 2인은 좁은 밭을 가진 쇠스랑, 가장자리의 2인은 날이 넓은 화가래를 사용하고 있다. 화가래는 팽이와 같이 땅을 파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날의 너비가 팽이 보다 넓어 흙에 닿는 면적이 넓은 편이다. 날의 일부가 'U'자형쇠날인지 아니면 전체가 나무로 된 것인지 그림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지만 겨울의 언땅을 농구로 내리치는 것으로 보아 'U'자형쇠날을 장착한 화가래로 보인다.

이로 보아 조선시대에 'U'자형쇠날은 가래, 화가래, 말굽쇠따비의 날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U'자형쇠날은 그 크기에 따라 가래, 화가래, 말굽쇠따비의 날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현재 상태에서 확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크기의 순으로 가래, 화가래, 말굽쇠따비의 날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씨레

沈師正의 <씨레질하는 농부[篤農牛耕]>(그림 27)도 패문경직도의 씨레질을 모범으로 그린 작품이다(전인지 1995 : 63~4). 우리나라의 사실적인 예라기 보다는 중국의 농경을 표현한 것이다. 씨레는 긴 토막 나무에 둥글고 끝이 뾰족한 이를 여러 개 빗살처럼 나란히 박은 농구



[그림 27] 심사정의 씨레질하는 농부

로서, 논에서 흙덩이를 부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씨레는 나무로 제작하여 후대에까지 형태를 남기기 곤란한 농구이므로 고고학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고 있다. 조선 후기에 수전농업이 발전하면서 중국의 농경을 묘사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5) 쇠스랑

김홍도의 유명한 『단원풍속화첩』 〈논갈이〉(그림 21)에는 쟁기질과 더불어 쇠스랑의 사용법과 형태가 묘사되어 있다.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로 간 논을 2명의 일꾼이 쇠스랑으로 밭의 흙을 부수거나 북돋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쇠스랑은 밭이 3개가 달린 것과 4개 달린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작업하고 있다. 긴 투겁에 자루를 장착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쇠스랑 I 형식이다. 소가 끄는 쟁기로 논을 갈고 그 흙덩이를 쇠스랑으로 정지하고 있다. 갈이와 삶는 과정을 하나의 화면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 방운의 〈飜風七月圖〉(그림 26)에도 화가래와 함께 쇠스랑으로 땅을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 쇠스랑이 갈이와 삶는 작업에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호미

조선시대의 농구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호미이다. 호미는 7세기 이후 등장한 김매는 농구로서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날의 형태가 지역에 따라 다양해진다. 조선시대의 회화자료에서도 호미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윤두서의 손자인 윤용이 그린 〈나물 캐는 아낙[挾籠採春]〉(그림 29)은 종이에 열은 채색을 한 것으로, 『集古今名畫帖』에 실려 있다. 이 그림의 소재는 할아버지 윤두서의 〈나물캐기[採艾圖]〉(그림 28)에서 따온 것이다(정병모 2000 : 258~9). 나물을 캐던 아낙은 호미를 들고 바구니를 옆에 낀 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 이 그림에 보듯이 윤두서의 그림에 나오는 나물 캐는 도구에 비해 묘사된 농구가 사실적이다. 윤두서의 나물캐기에 나오는 도구는 간단한 도자 모양의 것이나 이 그림에 나오는 도구는 전형적인 호미에 해당한다. 이를 낮으로 보는 견해(정병모 2000 : 258~9)도 있으나 모양으로 보아 낮형 호미임이 분명하다.



[그림 28] 윤두서의 나물캐기



[그림 29] 윤용의 나물 캐는 아낙

고려·조선시대의 실물 호미도 그 형태가 낫과 유사하지만 날이 더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부지방에 보이는 전형적인 낫형 호미이다. 남부지방은 북부지방에 비해 자갈밭이나 진흙밭이 많아 호미날이 좁고 날카로운 것이 많다. 지금도 남부지방에는 이러한 모양의 호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호미는 삼국시대인 7세기에 해당하는 상주 병성동·헌신동 3-3호 석실분에서 처음 출토되기 시작하여 안압지에서도 출토되었다. 삼국시대의 날이 넓은 네모형태의 호미[鐵鋤]에서 발전된 형태로서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호미의 출현으로 ‘中耕除草’의 김매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 호미의 특징 중 하나는 호미의 스펀도 쇠로 되어 있으며, 손으로 가릴 정도로 짧은 나무자루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윤용은 당시 시골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더 나아가 농구도 정확히 그리고 있다.

조선시대 호미의 가장 자세한 형태를 그린 그림은 馬君厚의 <나물 캐는 여인[村女採種]>(그림 30)이다. 1851년 땅속에서 동면하던 동물이 깨어 움직인다는 경칩일에 들나물을 캐는 여인들을 그린 그림에는 호미의 형태가 가장 상세하다. 호미날과 스펀은 쇠로 만들었으며 손잡이 부분만 나무로 제작하였다. 호미날은 기다란 삼각형이고 스펀은 가늘고 긴 모양이다. 쇠로 된 스펀은

나무손잡이에 끼워 넣었고 빠지지 않게 갱기로 고정한 것까지 묘사하고 있다. 왼쪽의 여인은 호미질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며, 오른쪽 여인은 애기 젖을 주느라 호미를 놓고 있어 호미의 형태를 잘 알 수 있다.

7) 살포

조선시대 살포는 기본적으로 농구이지만 궤장에 달린 의장구나 지팡이로도 인식되고 있다. 겸재 정선이 그린 <살포 짚고 폭포를 보다[杖錫觀瀑]>(그림 31)는 살포의 다른 용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당시 조선 선비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생활환경을 화폭에 올린 것이다. 도포는 차려 입었으나 갓은 벗었으니 농사 현장에서 監農하다가 폭포에 이끌려 온 듯하다. 망연히 폭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뜻밖에 자루가 긴 살포를 거꾸로 짚고 있다. 살포날을 위로 하여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에서만 있을 수 있는 선비들의 생활모습이다(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9 : 73). 한문주제는 삼으로 하



[그림 30] 마균후의 나물 캐는 여인



[그림 31] 정선의 살포 짚고 폭포를 보다

고 있으나 이는 조선 특유의 농구인 살포를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모양이 삽과 유사하여 붙였을 뿐이다. 살포는 한국 고유의 농구로서 논에 물꼬를 틀 때에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주관하는 수장이나 마을의 촌로들이 사용하였다. 農時에는 살포를 이용하여 논의 물꼬를 트거나 농사를 감독하였고 평시에는 살포날을 위로 하여 지팡이로 사용하였다.

8) 낫

낫은 농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농구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회화에서도 흔히 가을걷이를 묘사한 산수화나 풍속화에서 많이 나타난다. 심사정이 그린 〈벼베기〉(그림 32·33)는 『玄齋豹菴合璧帖』에 실려 있는 것으로 농촌에서 가장 일손이 달리는 수확의 시기임에도 한가함이 느껴진다. 허리를 굽혀 열심히 벼를 베는 농부는 분주하지만 논 바깥에서 일손을 멈추고 잠깐 쉬는 일꾼의 모습에서 인물산수화의 기풍을 느끼게 한다. 농촌의 추수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전원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보여 주려는 듯한 그림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벼를 베는 농부도 왼손으로 벼를 잡고 오른손에 든 낫으로 벼를 베면서 벼그루터기가 아니라 벼 이삭을 베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자연한 낫질인 것이다. 그러나 낫의 형태는 매우 사실적이다. 낫과 자루의 일부가 쇠로 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만 나무로 되어 있어 현재의 낫과 비슷한 모양새이다. 이로 보아 18세기 당시의 낫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낫은 낫이 반달 모양으로 굽은 것으로 강원, 충청, 전남지방에서 조사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낫은 슝베가 비교적 길고 낫이 두꺼워, 나무하는 데에 편리하며, 일반적으로 조선낫이라고 불리었다(김광연 1969 : 127~32). 낫의 각도가 거의 직각이고 낫의 너비가 길이에 비해 좁은 왜낫과 구별된다.

또 다른 조선낫의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에 실린 〈대장간〉(그림 34·35)이다. 슝베가 휘어넘어가는 낫공치는 넓으며 짧은 슝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쇠로 만든 낫갱기가 감겨 있다. 나무 자루는 낫의 길에 비해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심사정이 그린 낫보다 낫의 길이가 길고 가늘어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그림 32] 심사정의 벼베기



[그림 34] 김홍도의 대장간



[그림 33] 벼베기의 낫질



[그림 35] 대장간의 낫갈기

9) 타작

농촌에서 가을걷이를 한 후에 타작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농경작업이다. 이를 잘 묘사한 金斗樑의 〈四季山水圖〉(1744년)는 남종화풍의 풍속화로서 이른 시기의 예에 속한다. 이 중에서 ‘秋冬田園行獵勝會圖’는 가운데에 선비의 생활상을 배치하고, 그 양쪽에는 각각 추수하는 장면과 사냥하는 장면 등 계절의 정감을 느끼게 하는 전원의 생활상을 묘사하였다. 추수하는 장면에서는 농부들이 도리깨질하고 벼를 까부르고(그림 36) 점심을 나르고 디딜방아



[그림 36] 사계산수도의 도리깨질

를 찢고 소를 몰고 돌아오는 등 일손이 바쁜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작 장면은 패문경직도에 나오는 마당질, 키질 장면을 본 따서 그린 것이다. 소재는 경직도이나 화풍은 남종화풍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보이는 타작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중국의 것으로 김홍도의 타작에 보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2가지 타작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7] 김홍도의 풍속화첩 벼타작

또 다른 타작 모습은 김홍도의 작품에 보인다. 김홍도의 『단원 풍속화첩』에 실린 <벼타작>(그림 37)은 화면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나눌 때, 왼쪽 부분에는 일꾼들이 벼단을 메어치는 장면을 배치하고 오른쪽 부분에는 이를 감독하는 마름을 그려 넣었다. 일꾼들은 옷통을 벗거나 가슴을 풀어헤치고 옷 으면서 태질하는 자연스런 모습으로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타작형태인 통나무에 작은 나무를 엮어 벼를 내리치는 타작형

태로서 오늘날의 개상에 해당한다. 18세기 시골의 일반적인 타작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김홍도의 타작도는 김득신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김득신의 『風俗圖屏』에 실린 <벼타작>도 나무기둥을 가로로 하여 수확한 벼를 내리치

는 우리의 전통적인 벼타작 방식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풍속화에서 타작하는 방식을 표현한 회화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둥근 통나무에 멍석을 말아 수확한 벼를 내리쳐 탈곡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벼를 도리깨로 내리쳐 탈곡하는 방식으로, 중국 농구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자는 김두량의 사계산수도에 잘 나타나고, 후자는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에 잘 표현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회화에는 쟁기, 화가래, 가래, 씨레, 쇠스랑, 호미, 살포, 낫, 도리깨, 개상 등의 농구가 묘사되어 있다. 회화에 보이는 농구는 같이(쟁기, 화가래, 가래) - 삶기(씨레, 쇠스랑) - 김매기(호미) - 물대기(살포) - 거두기(낫) - 털이(개상, 도리깨) 등의 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농구의 대부분은 고고학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으나 나무로 만든 씨레, 번지, 고무래 등은 부식하여 남아 있지 않다. 실물 농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농서에 보이는 농구와 더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림을 통하여 농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복원할 수 있다.

Ⅲ. 農具로 본 農業技術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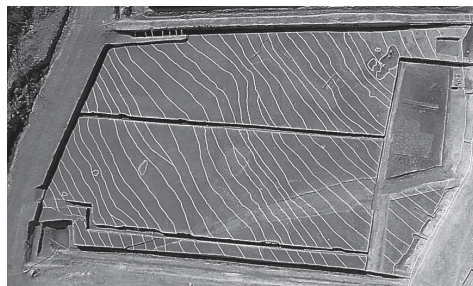
고려·조선시대 철제 농구의 보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 소가 끄는 쟁기의 사용이다. 소를 이용함으로써 노동력이 절감되고 깊이갈이를 할 수 있어 농업 생산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고려·조선의 철제 농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쟁기[犁]이다. 쟁기는 고구려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 초기에는 後漢 遼東地域 쟁기의 영향을 받아 漢代 보습을 사용하였으나 4세기 이후에는 고구려식 보습을 쟁기에 사용하였다(김재홍 2005 : 73~80). 그런데 遼河 流域의 선비족 문화권에서는 보습과 벼를 가진 쟁기가 사용되었으나 집안지역과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지역에서는 보습만 달린 無床犁가 농경에 주로 사용되었다¹⁰⁾. 고구려의 보습만 달린 無床犁는 그

10) 다만, 고구려 영역 내에서도 국경지대인 遼河流域에서는 遼西地方의 영향을 받아 벼 달린 보습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유적지로 遼寧省 撫順에 있는 高爾山城을 들 수 있다.

형태로 보아 주로 밭농사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 보습은 최근까지 농촌에서 사용한 일명 굽쟁이(술이 없는 쟁기)의 보습 형태(박호석 1993 : 100~5)와 아주 유사한 것이다. 이는 중국, 일본의 술이 있는 쟁기[有床犁]와는 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보습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계승한 것이 신라 통일기, 고려·조선시대의 보습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고구려식 보습의 삼각형을 계승하면서 세부적으로는 보습 頭部의 귀[耳]가 돌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쟁기는 주로 산간지역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형태가 두터우면서도 둥굴 길죽하며 쟁기에 2마리의 소를 사용하는 것이 통례였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보습도 삼각형이며,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논갈이〉에 나오는 쟁기에도 삼각형의 보습이 달려 있다. 특히 〈논갈이〉에 나오는 쟁기질에는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에 삼각형 보습을 장착하고 있어 『과농소초』에 나오는 산간지대의 쟁기와 거의 유사하다.

쟁기가 농업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경작지의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쟁기로 간 논에는 쟁기날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논 의 형태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 울산 無去洞 玉峴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논 의 전개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논(그림 38)은 주로 장방형의 小區劃된 논 의 독 안에 경작면의 凹凸부분이 매우 불규칙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삼국시대의 논은 중·대 규모의 계단식 논으로 요즈음의 논과 같이 기다란 모양을 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논으로는 삼국시대 후반에 해당하는 大邱 西邊洞과 昌原 盤溪洞의 논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구획 논에서 대규모 계단식 논으로 시기적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곽종철 2000 : 75~76). 세장방형 계단식 논은 철제 농구의 발전과 관련이 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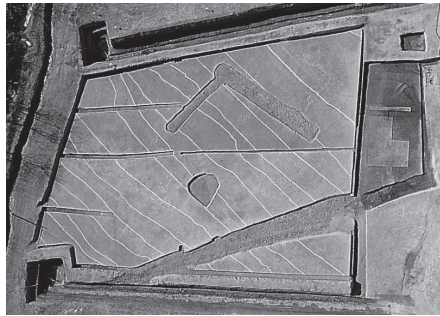


[그림 38] 옥전유적 삼국시대 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쟁기를 끄는 牛耕의 보급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것은 반계동과 서변동의 논유구에서 쟁기날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고 반계동에서는 주변에 소밭자국도 확인되어 가능성

을 더하고 있다.

옥현유적의 조선시대 논(그림 39)은 전체적인 형태가 삼국시대 후기의 것과 유사하나 논둑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는 쟁기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삼국시대 후기의 논둑 폭이 좁은 것은 소가 끄는 쟁기가 벗이 없는 無鏵犁이기 때문



[그림 39] 옥현유적 조선시대 논

이었다. 삼각형 보습을 사용하여 양쪽으로 흙을 반전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갈고 나서 다시 반복하여 다른 방향을 갈았다. 그러나 신라 통일기 이후 벗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한쪽으로 흙을 반전할 수 있어 한 방향으로 갈고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갈았기 때문에 넓은 폭의 경작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이후 논과 밭의 형태는 새마을 운동 이전 경작지의 형태와 유사하였다. 고려 시대에 밭농사에 쟁기를 사용한 증거는 진주 혁신도시에서도 확인되었다.

쟁기는 논과 밭농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논산 水湯石橋에서 철제 보습과 벗이 함께 출토되었다. 이 쟁기는 다리 주변에서 출토된 것으로 하천을 굴착하는 기능과 관련지을 수 있다. 영조대 〈御前瀋川題名帖〉에서도 청계천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소가 끄는 쟁기를 이용하여 하천을 굴착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쟁기는 농사일에 뿐만 아니라 다리의 조성, 하천의 굴착 등 다방면에 긴요하게 사용되었다.

쟁기로 밭을 갈수 없는 산간이나 섬에서는 따비와 팽이를 사용하여 경작지를 경작하였다. 따비와 주조팽이는 주로 간단하게 밭을 갈거나 흙덩어리를 부술 때에 사용하는 농구로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삼국시대까지의 따비는 주로 외날따비나 ‘U’자형쇠날의 말굽쇠따비를 사용하였으나 고려시대 이후에는 말굽쇠따비와 코끼리이빨따비를 주로 이용하였다. 쟁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지역과 기능에서 이용되었으나 농민층의 手耕具로서 여전히 사용되었다. 따비는 쟁기와 그 기능이 동일하였으므로 조선시대까지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쟁기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인 삼국시대에 가장 중요한 농구인 따비(‘U’자형쇠날)는 쟁기가 사

용된 이후에도 수경구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U’자형쇠날은 나무자루에 장착하는 방법에 따라 가래, 화가래, 말굽쇠따비 등 다양한 용도의 농구로 애용되었다.

같이 농구인 쟁기, 따비, 쟁이에 비해 쇠스랑은 새로운 기능의 농구로서 주목된다. 쇠스랑의 출현은 다양한 농구의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농사기술의 발전을 의미한다. 즉 논외 토양은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논농사에 적합한 같이농구는 땅에 꽂혔을 때 생기는 진공상태의 저항도가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스랑은 가벼우면서도 흙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강인하기 때문에 논농사에서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선진 농구의 도입으로 구릉지대나 산간에서는 밭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밭작물 재배지 이외에도 麥作이 늘어나고, 따라서 곡물류에서 맥류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져 갔을 것이다. 쇠스랑이 농사일에 사용되면서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삼한·삼국시대의 무덤유적에서는 ‘U’자형쇠날과 쇠스랑이 함께 출토되고, 고구려의 생활유적에서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는 ‘U’자형쇠날을 장착한 따비나 화가래와 더불어 쇠스랑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농구임을 알 수 있다. 같이 작업에 ‘U’자형쇠날이 장착된 화가래, 흙을 부수는 삶는 작업에 쇠스랑을 이용하는 농작업은 삼국시대부터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것이다. 이러한 농작업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계승되었다. 조선시대 이방운의 <빈풍칠원도>에는 화가래와 쇠스랑으로 수행하는 농작업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시기의 따비(화가래)와 쇠스랑 등의 手耕具를 이용한 농작업은 지주 양반층에서 수행되었다기 보다는 소작농이나 자영소농민층에 의해 수행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수경구의 조합에 의한 농작업에서 진전된 형태가 축력구와 수경구가 결합한 형태의 농작업이다. 대표적인 것이 같이 작업에 소가 끄는 쟁기를 이용하고 흙을 삶는 작업에 쇠스랑을 이용하는 농작업이다. 이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농작업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구려의 보루유적에서는 보습, 쇠스랑 등의 농구가 조합을 이루어 출토되고 있다. 같이농사에 쟁기가 이용되고, 흙을 삶는 작업에 쇠스랑을 이용하는 고구려의 農作業은 조선 후기에 도이어서 정형화된 농작업으로 발전하였다. 이 작업은 조선 후기에 김홍도의 風

俗圖帖에서도 확인된다.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삼각형 보습과 벗이 달린 쟁기질이 이루어진 뒤에 두 사람이 쇠스랑을 이용하여 흙을 삶고 있다. 이러한 畜力 및 手耕 農具에 의한 갈이와 삶기 작업이 조선시대 농작업의 기본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쟁기와 쇠스랑을 이용한 농작업으로 보아 일반 농민층의 소농경리보다는 양반 지주층의 농업경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축력구인 쟁기와 더불어 같이 작업에 사용된 것이 가래이다. 가래는 흙을 파거나 떠서 던지는 농구로서 도랑을 치고 두둑을 만드는 일이나 논바닥을 고루는 작업 등에 두루 사용되었다. 가래는 나무로 만든 군두에 ‘U’자형쇠날을 장착한 농구로서 크기가 큰 ‘U’자형쇠날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따비날이나 화가래날과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 자세한 모양과 기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영조대 청계천을 준설하면서 그린 〈御前瀋川題名帖〉이다. 여기에는 한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질과 더불어 세손목 한카래의 가래질이 묘사되어 있다. 축력구인 쟁기질로 커다란 작업을 수행하고 세부적인 갈이 작업은 가래로 하고 있다. 특히 논과 같이 점성이 많은 흙을 가는 작업에 쟁기와 가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조선시대에는 手耕具와 畜力具를 조합하여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쟁기-가래, 쟁기-쇠스랑, 화가래-쇠스랑 등을 조합한 농작업은 갈이와 삶는 작업이 철제 농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갈이와 삶는 작업을 마치고 김매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김매는 작업은 호미가 수행하였다. 고려·조선시대의 철제 농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호미이다. 호미는 일반적으로 김매는 작업에 사용된 것으로 이전 시기의 鐵鋤가 수행한 흙을 복돋아 주거나 苗間을 긁어 간단히 제초를 하는 기능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다. ‘凸’자형 철서는 논보다는 밭에서 사용한 농구이었지만(김재홍 1997 : 13~5), 호미는 논과 밭에서 잡풀을 제거하는 김매는 작업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제초작업은 서유럽에서는 ‘intertill’, 華北田作地帶에서는 ‘鋤’, 華南稻作地帶에서는 ‘薅’, 일본에서는 ‘中耕除草’라고 불렀다. 그런데 농사직설에서도 김매는 작업과 관련하여 ‘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과 같은 중경제초의 의미보다는 화복과 같이 耐耨을 목적으로

하는 김매는 작업이었을 것이다(이호철 1986 : 152).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중국의 화북과 화남의 중간이므로 봄의 耐
투과 여름의 除草를 모두 겸하는 우리나라식의 김매는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
호미는 고려시대에는 자루가 긴 長柄鋤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차츰 자루가 짧
은 短柄鋤가 주류를 점하게 되었다. 장병서는 자루가 길어 서서 농작업을 수
행하기 편리하였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내한과 제초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는
농업지대에서는 좀 더 세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루가 짧은 단병서로 대
체되어 갔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호미에 비하여 조선시대의 호미는 자루가 짧
아지고 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의 마균후의 <나물 캐는 여인>에서 보듯이 시
골의 아낙네가 자루가 짧은 호미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보이고 있다. 호미의 자
루가 짧아지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용하는 농구로 변화하고 있다.

고려·조선시대 水田農事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논에 물을 대는 작업이
다. 논에 물대는 농구로는 두레, 맞두레, 용두레, 무자위, 물풍구 등이 있었으
나,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어 발굴조사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농구이다. 이에
비해 날을 쇠로 만든 살포는 현재도 농촌에서 논에 물대는 농구로 사용되고
있다. 살포는 긴 자루 끝에 ‘ㅊ’자형 쇠날을 가진 농구로서 평시에는 노인의
지팡이로 사용되었다. 살포는 초기에는 물대는 농구로서 사용되었으나 차츰
수장의 권위를 상징하면서 儀仗具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거두는 농구[收穫具]로는 낫이 대표적이다. 삼국시대의 쇠낫은 슝베가 없
이 날에 바로 나무자루를 연결하였으나 신라 통일기 이후 긴 슝베에 나무자
루를 장착하였다. 슝베를 쇠로 제작한 낫이 출현하면서 이삭을 따는 농구에
서 벼그루를 베는 용도의 농구로 전환되었다. 벼그루를 베어 여러 가지 용도
로 이용하게 되면서 거두어들인 벼를 터는 농구[打作具]가 필요하게 되었다.
터는 농구로는 중국에서 들어온 도리깨와 더불어 우리 고유의 개상이 사용되
었다. 슝베까지도 쇠로 만든 낫을 사용하면서 벼그루를 베게 되고 거두어들인
벼를 타작하게 되었다. 타작을 마친 벼짚은 거름으로 재사용하거나 초가집의
지붕으로 이용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조선시대의 농구는 쟁기(보습과 벅)·‘U’자형쇠날(따
비·화가래·가래)·괭이 등의 같이 농구[起耕具], 씨레·쇠스랑과 같은 삶

는 농구[摩田具], 살포와 같은 물 대는 농구[水田具], 호미와 같은 김매는 농구[除草具], 낫과 같은 거두는 농구[收穫具], 그리고 도리깨·개상과 같은 터는 농구[打作具]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 보아 당시 고려·조선에서는 같이[起耕]-삶기[摩田]-물대기[給水]-김매기[除草]-거두기[收穫]-털이[打作] 등의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려·조선시대의 농구 조합을 잘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 세조 원년(1456)에 河緯地가 양자인 龜童에게 물려준 재산목록인 遺券에는 15세기 양반가의 농구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큰 소와 작은 소 각 1匹, 따비[耒] 3개, 호미[鋤] 3개, 쟁이[封伊] 6개, 쇠스랑[小時郎] 2개, 낫[鎌] 1개의 농구가 있다. 당시 양반가의 영농규모를 알 수 있다. 유권의 쫓는 일반적으로 耒耜라고 하였으며 우리말로 따비라고 하였다. 그러나 따비와 쟁기는 용도와 구조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가 없었으므로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서로 통용하여 왔던 것이다. 구분하자면 구조가 간단하고 사람이 가는 농구는 따비, 구조가 복잡하고 축력으로 움직이는 것은 쟁기라고 하는 정도였다. 유권에서도 별도로 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쫓는 쟁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쟁기가 용도와 크기에 따라 다양한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이 쟁이가 6개로 많다는 사실이다. 쟁이는 같이·삶기·물대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구이므로 양반가나 농가에서 쓸모가 많았던 농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양반가는 같이 농구로 쟁기·쟁이, 삶이 농구로 쇠스랑, 김매는 농구로 호미와 쟁이, 거두는 농구로 낫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15세기 양반가는 2필 정도의 소와 쟁기를 이용하여 경작하는 소농경영을 유지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고고학 자료, 農書, 회화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고려·조선시대의 농구를 추출하고 그 사용법과 농업 기술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추상적인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논한 연

구 성과보다 구체적인 실물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굴현장에서 얻어진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農耨와 회화에 보이는 농경을 분석하여 고려·조선시대의 농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農具는 쟁기(보습과 벧)·‘U’자형쇠날(따비·화가래·가래)·괘이 등의 같이 농구(起耕具), 씨레·쇠스랑과 같은 삶는 농구(摩田具), 살포와 같은 물 대는 농구(水田具), 호미와 같은 김매는 농구(除草具), 낫과 같은 거두는 농구(收穫具), 그리고 도리깨·개상과 같은 터는 농구(打作具)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 보아 고려·조선에서는 같이(起耕)-삶기(摩田)-물대기(給水)-김매기(除草)-거두기(收穫)-털이(打作)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관련하여 가장 발달한 농구는 쟁기, 살포, 호미이다. 특히 호미는 김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기후와 지형에 맞는 농구이다.

이러한 농구 중에서 畜力具와 手耕具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하였다. 특히 쟁기-가래, 쟁기-쇠스랑, 화가래-쇠스랑 등과 같이 같이와 삶는 농구를 이용하는 농작업은 가장 일반적인 농사체계였다. 고고학 자료에서도 같이·삶는 농구의 출토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철제 농구가 출토된 유적은 무덤유적과 생활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 무덤유적에는 土壙木棺墓와 石槨墓가 있는데, 고려·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다. 생활유적은 사찰터, 관청터, 冶鐵址, 住居址, 城, 다리[石橋] 등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주로 무덤유적에서 철제 농구가 출토되는 비율이 높으나, 고려·조선시대에는 사찰·건물지·城과 같은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양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중·근세의 유적과 유물의 발견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 현장의 성과에 비해 중·근세의 농경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이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농구의 확인 및 검토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면 한다.

투고일 2012.4.21 | 심사완료일 2012.5.21 | 게재확정일 2012.5.22

참고문헌

- 사료 -

『農事直說』
『農家集成』
『穡經』
『山林經濟』
『課農小抄』
『海東農書』
『林園經濟志』
『世宗實錄』
『訓蒙字會』
『東文選』

- 도록 · 단행본 -

京畿道博物館, 1997, 『京畿國寶』.
고려대박물관, 2001, 『李景奭賜几仗宴會圖帖』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겨레와 함께 한 쌀』.
國立中央博物館 · 湖巖美術館 · 澗松美術館, 1995, 『檀園 金弘道』.
金光彥, 1969, 『한국의 농기구』, 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_____, 1986, 『韓國農器具考』,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金容燮, 1988, 『朝鮮後期農學史研究』, 일조각.
_____, 2000, 『韓國中世農業史研究』, 지식산업사.
金在弘, 2011, 『韓國 古代 農業技術史 研究: 鐵製 農具의 考古學』, 도서출판 考古.
閔成基, 1990, 『朝鮮農業史研究』, 一潮閣.
朴虎錫 · 宋鉉甲 · 오비노 미첼, 1988~1990, 『東 · 西洋 쟁기의 發達過程 研究』, 農事試驗研究論文集, 農村振興廳.
朴虎錫 · 安承模, 2001, 『한국의 농기구』, 語文閣.
白南雲, 1933,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하일식 역, 1994 이론과 실천).
宋應星 著 · 崔炷 譯, 1997, 『天工開物』, 전통문화사.
安秉佑, 2002, 『高麗前期의 財政構造』, 서울대출판부.
엄정섭, 2002, 『조선시대 농법 발달 연구』, 태학사.
魏恩淑, 1993, 『高麗後期 農業經濟研究』, 혜안.
李正浩, 2009, 『고려시대 농업생산과 권농정책』, 경인문화사.
李春寧, 1964, 『韓國農業技術史』, 韓國研究院.
_____, 1989, 『한국農學史』,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39, 민음사.
李泰鎮, 1986,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_____, 1989, 『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李鎬澈, 1986, 『朝鮮前期農業經濟史』, 한길사.

정병모, 2000,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조선기술발전사편찬위원회, 1996, 『조선기술발전사6(이조후기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주강현 엮음, 1989, 『북한의 민속학-재래농법과 농기구』, 역사비평사.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7, 『東垣李洪根蒐集名品選(繪畫)』.
 한국민족미술연구소, 2009, 『간송문화』76.

- 중문자료 -

孫機, 1991,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 文物出版社.
 周昕, 2005, 『中國農具發展史』, 山東科學技術出版社.
 中國農業博物館農史研究室 編, 1989, 『中國古代農業科技史圖說』, 農業出版社.
 中國農業博物館, 2002, 『館藏中國傳統農具』, 中國農業出版社.
 陳文華 編, 1991, 『中國古代農業科技史圖譜』, 農業出版社.
 _____, 1994, 『中國農業考古圖錄』, 江西科學技術出版社.

- 일문자료 -

飯沼二郎·堀尾尙志, 1976, 『農具』, ものと人間の文化史 19, 法政大學出版局.
 朝鮮總督府, 1925, 『朝鮮の在來農具』 (한국무속박물관, 1995, 『조선의 재래농구』).
 河野通明, 1994, 『日本農耕具史の基礎的研究』, 和泉書院.

- 논문 -

郭鍾喆, 1991, 「韓國과 日本의 古代農業技術」 『韓國古代史論叢』4, 한국고대사회연구소.
 _____, 2000, 「發掘調査를 통해 본 우리나라 古代의 水田稻作」 『韓國 古代의 稻作文化』, 국립중앙박물관.
 宮嶋博史, 1977, 「李朝後期農書の研究」 『人文學報』43, 京大 人文科學研究所.
 金度憲, 2010, 「嶺南 地域의 原始·古代 農耕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金在弘, 1997, 「살포와 鐵鋤를 통해서 본 4~6세기 농업기술의 변화」 『科技考古研究』2, 아주대박물관.
 _____, 2003, 「신라 통일기 전제왕권의 강화와 촌락지배」 『신라문화』22,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_____, 2005, 「高句麗의 철제 농기구와 농업기술의 발전」 『북방사논총』8, 고려연구재단.
 _____, 2007, 「금강유역 출토 百濟 儀仗用 살포」 『考古學探究』창간호.
 閔成基, 1988, 『農家月令』과 16世紀의 農法」 『朝鮮農業史研究』, 一潮閣.
 朴虎錫, 1993, 「한국 쟁기의 발달과 역학적 특성」 『민족문화』6,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_____, 1994, 「한국 따비에 관한 고찰」 『한국의 농경문화』4, 경기대 박물관.
 裴永東, 1993, 「호미의 變遷과 農耕文化」 『민족문화』6,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宋閔貞, 2007, 「統一新羅 鐵製 農·工具의 특성과 발전양상-생활유적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9, 「統一新羅時代 鐵製 牛耕具의 특성과 발전양상」 『한국고고학보』72.
 廉定燮, 1998,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촌경제의 변화」 『한국사』30(조선 중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 魏恩淑, 1993a, 「고려시대 농업기술과 생산력연구」 『국사관논총』17,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3b, 「농업생산력의 발전문제」 『한국사』14(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6, 「농업기술의 발전」 『한국사』19(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 _____, 1997, 「고려시기 韓·日 농업기술 비교연구」 『한국민족문화』9,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 은화수, 2003, 「쇠스랑 小考」 『國立公主博物館研究紀要』3, 국립공주박물관.
- 이수미, 2000, 「회화 속의 벼농사」 『겨레와 함께 한 쌀』, 국립중앙박물관.
- 李永鶴, 1997,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품작물의 재배」 『한국사』33(조선 후기의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 李鎬澈, 1994, 「농업과 농업기술」 『한국사』24(조선 초기의 경제구조), 국사편찬위원회.
- 전인지, 1995, 「현재 심사정 회화의 양식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시경, 1959, 「연백지방의 축력 농기구에 관한 민속학적 고찰」 『문화유산』1959-2(주강현 엮음, 1989, 『북한의 민속학-재래농법과 농기구』, 역사비평사에서 재인용).
- 千末仙, 1994, 「鐵製 農具에 대한 考察」 『嶺南考古學』15, 영남고고학회.
- 崔元奎, 1999, 「개항기 지주제와 농업경영」 『한국사』39(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국사편찬위원회.
- 홍희우, 1959, 「15세기 이후의 조선 농구에 대하여」 『문화유산』1959-5(주강현 엮음, 1989, 『북한의 민속학-재래농법과 농기구』, 역사비평사에서 재인용).

- 보고서 -

-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江陵 神福寺址』.
- _____, 2008, 『原州 盤谷洞遺蹟』.
- 경기도박물관, 2000, 『龍仁 壬辰山城』.
- 경남고고학연구소, 2004, 『晉州 武村Ⅱ-高麗·朝鮮墓群(2)』.
- _____, 2004, 『晉州 武村-高麗·朝鮮墓群(1)』.
- _____, 2005, 『梁山 所土里 松菊里文化集落』.
- 경남대·밀양대박물관, 1999, 「蔚山 無去洞 玉峴遺蹟」, 현장설명회자료.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0, 『高靈池山洞古墳群』.
- _____, 2003, 『尙州 城洞里 古墳群Ⅱ』.
- 구의동보고서간행위원회, 1997, 『한강유역의 고구려요새-구의동유적발굴조사종합보고서』.
- 국립춘천박물관, 2007, 『洪川 物傑里寺址』.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水原 九雲洞 中世 住居遺蹟』.
- _____, 2006, 『平澤 宮里 遺蹟』.
-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2006, 『과주 혜음원지 발굴조사 보고서-1~4차(Ⅰ)』.
- 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2002, 『萬歸亭址』.
- 동아대박물관, 1992, 『昌寧 校洞古墳群』.
- 명지대박물관, 1993, 「더부골 고분군(Ⅰ) 발굴조사보고서」 『高陽中山地區文化遺蹟』.
- 고려대박물관, 1992, 「과주군 성동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보고서』, 경희대 부설 고고미술사연구소.

- 목포대박물관, 1999, 『珍島 龍藏城』.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8, 『雁鴨池』.
- 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대전 상대동유적(Ⅲ)』.
- _____, 2011, 『聖住寺址(7차)』.
- 부산여대박물관, 1987, 『居昌壬佛里天德寺址』.
- 성립문화재연구원, 2007, 『慶州 勿川里 高麗墓群 遺蹟』.
- 순천대박물관, 2005, 『光陽 馬老山城(Ⅰ)』.
- 양익룡, 1953, 「안변룡성리고분발굴보고」 『문화유산』1953-4.
- 영남문화재연구원, 1999, 「大邱 西邊洞마을遺蹟 발굴조사」Ⅰ·Ⅱ, 현장설명회자료 19·22.
- _____, 2010, 『慶州 花川里 山214-1番地 遺蹟』.
- 유병록·김병섭, 2000, 「대구 西邊洞유적 발굴조사의 개요와 성과」 『영남문화재연구원 제13회 조사연구회』, 영남문화재연구원.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大田 加吾洞遺蹟』.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6, 『平澤 芝山洞遺蹟』.
- _____, 2010, 『충주 침단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老鷄마을 高麗時代 冶鐵遺蹟』.
- 창원대박물관, 2000, 『昌原 盤溪洞遺蹟』Ⅱ.
- 충남대박물관, 2002, 『論山 水湯石橋』.
- 충북대박물관, 2001, 「옥천 백지리유적」 『경부고속철도 대전·충청권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Ⅱ)』.
- _____, 2004, 『청주 봉명동유적(Ⅲ)-Ⅳ지구 발굴조사보고②』.
- 충주대박물관, 2006, 『충주 송선사지』.
- _____, 2006, 『忠州 崇善寺址』.
- 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牙山 長在里 대추리·연화동 유적』.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08, 『華城 長芝里 遺蹟』.
- 한신대박물관, 1996, 『水原 靈通 高麗遺蹟 發掘報告書』.
- _____, 2000, 『水原 古邑城』.
- _____, 2003, 『龍仁 麻北里 寺址』.
- 한양대박물관, 1993, 『高陽中山地區文化遺蹟』.
- _____, 1995, 『영송리 선사유적』.
- _____, 2002, 『安山 大阜島 六谷 高麗 古墳群』.
- _____, 2003, 『廣州 鄉校』.
- _____, 2006, 『安山 大阜島 六谷 高麗 古墳群Ⅱ』.
- 해동문화재연구원, 2010,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Ⅱ-1지구)결과 약보고」.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長興 上芳村B遺蹟』.

Analysis of Agricultural Utensils from the Medieval Age to Early Modern Age, Korea

Kim, Jae Hong(Chuncheon National Museum)

In this article, agricultural utensils of Goryeo and Joseon dynasty were analyzed based on the agricultural representation found from agricultural literature and genre paintings combined with data gathered from excavation sites.

The agricultural utensils are composed as plowing utensils(起耕具) such as iron plowspares, iron shovel ends (plows and spades) and iron hoe, seeding utensils(摩田具) such as rakes and pitchfork, watering utensils for the rice field(水田具) such as Salpo, weeding utensils(除草具) such as iron weeding spades, harvesting utensils(收穫具) such as sickles, and threshing utensils(打作具) such as flails, log threshing-stands.

Consequently, it is assumed that in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the cultivation process was systematically organized as plowing harrowing watering weeding harvesting threshing. The utensils reflecting Korean climate are iron plow spares, Salpo and hoes and especially hoe, conveys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climate and topography which weeding process was the most significant part.

Also iron plow spares- spades, iron plow spares-pitchfork, spades-pitchfork which are plowing and seeding utensils. Iron agricultural utensils found in excavation sites often include plowing and seeding utensils. The sites where iron agricultural utensils have been usually excavated are tomb vestiges and residence vestiges.

Keywords : iron plowspare, elephant teeth-shaped plow, plough, hoe, rake, iron agricultural utensils, Danwon pungsokhwacheop